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정 윤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이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

-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의 매개효과 -

2014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김 누 리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이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

-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의 매개효과 -

이 정 윤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김 누 리

인 준 서

김누리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내면화된 수치심과 음주문제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의 하위유형인 분노표출과 분노억제의 매개효과를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과 전북지역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604명을 대상으로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nternalized Shame Scale: ISS),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 척도(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음주문제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18.0과 Amo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변인들의 상관분석 결과, 내면화된 수치심은 음주문제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고,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인 분노표출과 분노억제와도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또한 분노표출과 분노억제는 모두 음주문제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둘째, 내면화된 수치심과 음주문제에 대한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분노표출, 분노억제)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을 각각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으로 설정하고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분노표출과 분노억제가 내면화된 수치심과 음주문제를 부분매개하는 연구모형이 더 적합한 모형으로 채택되었다. 셋째, Preacher와 Hayes(2008)가 제안한 다중매개모형(multiple mediator model) 분석 절차에 따라 매개분석을 실시한 결과, 내면화된 수치심은 음주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으며, 분노표출과 분노억제에도 각각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분노표출은 음주문제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분노억제와 음주문제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내면화된 수치심과 음주문제의 관계에서 분노표출과 분노억제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SPSS macro를 사용하여 부트스트랩 방법

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내면화된 수치심과 음주문제의 관계에서 분노표출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분노억제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따라서 내면화된 수치심은 음주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분노표출을 매개로 간접적으로도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이 분노표출을 매개로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음주문제의 발생 기제 및 경로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제공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음주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을 상담할 때, 내면화된 수치심을 다뤄주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이 갖고 있는 부적절한 분노표출 방식을 적응적인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상담개입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내면화된 수치심,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 분노표출, 분노억제, 음주문제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및 가설 6

II. 이론적 배경

1. 음주문제 8
 - 1) 음주문제의 정의 8
 - 2) 대학생 음주문제 11
2. 내면화된 수치심 14
 - 1) 내면화된 수치심 14
 - 2) 내면화된 수치심과 음주문제의 관계 17
3. 분노표현양식 20
 - 1) 분노 20
 - 2) 분노표현양식 21
 - 3)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표현양식의 관계 23
 - 4) 분노표현양식과 음주문제의 관계 26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29
2. 측정 도구 31
 - 1) 내면화된 수치심 31
 - 2)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 32

3) 음주문제	33
3. 자료 분석	35

IV. 연구결과

1. 음주 관련 특성	36
2. 주요 변인들의 상관계수 및 평균, 표준편차	39
3. 구조모형 검증	41
4. 매개효과 검증	44

V. 논의

1. 결과에 대한 논의	47
2.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과 제언	50

참고문헌

ABSTRACT(영문초록)

부 록

표 목 차

<표 1>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30
<표 2>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의 하위영역 구성	32
<표 3>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 하위영역 구성	33
<표 4> 음주문제 하위영역 구성	34
<표 5> 성별에 따른 음주경험	36
<표 6> 연구 대상자의 음주관련 특성	37
<표 7> 주요 변인의 상관계수 및 평균, 표준편차	40
<표 8>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 비교	42
<표 9> 개별효과 모수치 검증	45
<표 10> 부트스트랩 검증 결과	46

그 립 목 차

[그림 1] 연구모형	7
[그림 2]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41
[그림 3] 다중매개모델	44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사회는 음주에 대해 허용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어 음주가 모든 일상에 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며, 사회생활의 필수적인 조건처럼 인식되고 있다(임경화, 1999). 기분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생겼을 때, 고마움을 전할 때나 사과 하고 싶을 때, 위로하고 싶을 때나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을 때를 막론하고, 술은 사회적 대인관계를 촉진시키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돕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적당한 음주는 기분을 일시적으로 좋게 하고 긴장을 완화시켜 개인이나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과도하고 습관적인 음주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를 유발한다(김인, 2011; 박수진, 2010; 변영순, 2001; 양난미, 2009). 지나친 음주는 간질환이나 소화기 질환 및 구강암, 식도암, 간암 등과 같은 암질환의 발생가능성을 높이며, 분노, 불안, 우울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증가시킨다. 또한 음주는 사회적 측면에서 교통사고나 폭력, 강도, 폭행, 성폭력, 음주운전 등과 같은 범죄에 영향을 미치며, 학교와 직장에서의 생산성, 집중력 저하와도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 2007).

2010년에 발표된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의 월간 음주율이 2005년의 남성 72.6%, 여성 36.9%에 비해 2010년에는 남성 77.8%, 여성 43.3%로 증가했으며,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도 2005년의 남성 23.2%, 여성 4.6%에 비해 2010년에는 남성 24.9%, 여성 7.4%로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2011). 특히 20대의 음주율은 85.9%로, 30대의 83.5%, 40대의 78%, 50대의 66.7%, 60대 이상의 46.3% 등 다른 연령대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대의 음주횟수도 상대적으로 높아 주 1-2회 이상 술을 마시는

비율이 29.8%에 이르고 있으며(양난미, 2009), 음주사고로 인한 사망률도 모든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게 발생하고 있다(천성수, 1998).

이처럼 문화적으로나 법적으로 음주가 허용되는 대학생의 음주형태는 일반인들에 비해 더 심각한 양상을 보인다. 대학생의 음주형태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과음하는 특징을 보이며, 동일한 연령대의 일반인에 비해서도 더 잦은 음주빈도와 많은 음주량을 나타낸다(이한숙, 2004).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에서 실시한 대학생 음주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술을 마신 경험이 있는 음주자의 연간 음주율이 1997년에 93.0%에서 2000년에는 96.3%로 증가했으며(조성기, 장승옥, 윤혜미, 이혜경, 최현숙, 제갈정, 2001 재인용), 지난 한 달 동안 술을 마신 경험이 있는 음주자의 월간 음주율은 92.2%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일주일에 2-3회 이상 술을 마시는 비율은 32.1%, 일주일에 1회 이상 폭음을 하는 비율은 남학생이 48.4%, 여학생이 19.1%인 것으로 보고되었다(천성수, 손애리, 송창호, 이주열, 김선경, 2003). 한편 보건복지부(2005)는 지난 2주 동안 남학생의 경우 한 자리에서 5잔 이상, 여학생의 경우 4잔 이상 술을 마신 경험이 있는 폭음(binge drink)의 비율도 60.4% 정도로 나타나, 미국 대학생의 44%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했다(천성수, 2007; 양난미 2010 재인용).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음주를 하며, 이러한 음주행위가 친교의 목적인 사교적 음주(social drinking)의 범위를 벗어나 문제음주(problem drinking)의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김혜진, 신현균, 홍창희, 2008). 대학생의 음주문제는 개인의 건강상의 문제, 대인관계 및 학업상의 문제뿐 아니라 사회문제까지도 야기할 수 있으며(김용석, 김정우, 김성천, 2001; 박종순, 2000; 최현숙, 2001), 이 시기에 발생한 문제는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의 음주습관 및 양상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음주문제는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김의숙, 2000).

외국의 경우에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연구주제로 대학생 음주문제가 주목받

고 있으며, 그 연구들을 바탕으로 대학생 음주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캠퍼스 약물남용예방 및 개입프로그램 등이 진행되고 있다(호산나, 2003; Cohen & Rogers, 1997; Knight, Harris, & Sherritt, 2003).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생 스스로 음주문제에 대한 인지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대학 당국에서도 음주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피하고 있는 실정이다(신행우, 2004; 호산나, 2003). 음주로 인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어떤 사건이나 사고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주로 음주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다(임경화, 1999). 이에 대학생 음주행동 및 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예방과 개입을 하기 위한 일차적인 접근으로 대학생의 문제음주에 대한 체계적인 경험적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신행우, 2009; 호산나, 2003).

개인의 음주행동을 설명하는 요인은 유전적 원인, 심리학적 요인, 행동학적 원인, 사회문화적 요인 등 다양하다. 음주욕구를 유발하는 원인이 어떤 것인간에 음주 양이나 빈도와는 별개로 음주행동이 음주문제로 발전하는 데는 또 다른 요인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박영이, 2002). 이는 술을 마시는 다수의 사람들 중 일부만이 음주문제를 보이며(김해진 외, 2008), 단순히 술을 자주, 그리고 많이 마시는 것만으로 음주문제가 많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박영이, 2002; 한소영,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표현양식과 같은 개인내적 특성에서 차이를 가정하고, 이를 음주문제를 예측하는 심리학적인 요인으로 보았다.

내면화된 수치심은 단순히 특정 상황에 대한 부끄러움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존재에 대한 공허감, 부적절감, 무가치함, 열등감을 포함하는 문제를 유발하는 고통스러운 정서이다(Kaufman, 1989). Cook(1991)은 내면화된 수치심이 알코올중독과 남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은 사람이 수치심으로 유발된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기 위해 대처수단으로 알코올이나 약물 등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

다. 유은영(2012)의 연구에서도 내면화된 수치심이 중독가능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 이러한 이론을 경험적으로 지지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내면화된 수치심과 음주문제가 서로 유의한 상관을 가질 것으로 가정하였다.

한편 수치심은 여러 가지 이차적 정서를 유발하는데 그 중에서도 분노는 다른 정서에 비해 수치심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장진아, 2006). 수치심이 성격으로 내면화된 사람은 어떤 감정을 느낄 때마다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화를 낼 때에도 수치심을 느끼게 되어 분노의 감정을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수치심과 분노 및 분노표현양식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수치심이 높은 사람은 강렬한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지만 이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하여(최은영, 2010), 분노와 관련된 문제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수미, 2009). 이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은 사람이 분노를 더 많이 경험하며(Tangney, Wagner, & Gramzow, 1992), 분노감정에 대해 타인에게 적대적으로 분노를 표출하거나 분노감정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여 무조건적으로 억제하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정해숙, 정남운, 2011). 이렇듯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은 사람들은 분노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는 개인으로 하여금 술에 취하고 싶은 충동을 불러일으키며, 음주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Monti, 1985; 김수, 2007 재인용). 음주문제는 분노정서를 경험할 때뿐만 아니라 분노를 무분별하게 표출하거나 무조건적으로 억제하고 회피하는 분노표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박영주, 한금선, 신현정, 강현철, 문소현, 2004; Mustante & Treiber, 2000). 알코올 의존 집단에서 분노와 부적응적인 분노표현양식이 음주행동을 예측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일반 성인에 비해 높은 음주율을 보이는 대학생 집단도 분노를 많이 경험할수록, 그리고 분노표현이 역기능적일수록, 음주행동이 많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음주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김해진 외, 2008; 임영란, 2000).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내면화된 수치심은 음주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은 사람은 음주문제를 더 많이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면화된 수치심은 부정적인 분노표현양식에 영향을 주고, 분노를 효율적으로 다루지 못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음주문제를 더 많이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내면화된 수치심은 직접적으로 음주문제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을 매개로 간접적으로도 음주문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내면화된 수치심과 음주문제(유은영, 2012; Cook, 1991),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표현양식(김수미, 2009; 정해숙, 정남운, 2011; 최은영, 2010; Tangney et al., 1992), 분노표현양식과 음주문제간의 관계(김해진 외, 2008; 박영주 외, 2004; 임영란, 2000; Monti, 1985; Mustante & Treiber, 2000)를 개별적으로 살펴 본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각각의 변인들이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내면화된 수치심과 음주문제 사이에서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이 매개요인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검증해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면화된 수치심과 음주문제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이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음주문제의 관계에서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의 매개효과가 검증된다면, 음주문제의 발생 기제 및 경로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음주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을 상담할 때, 개인이 갖고 있는 역기능적 분노표현방식을 기능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효과적인 상담개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문제 및 가설

앞에서 언급한 연구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 가설 및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내면화된 수치심,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분노표출, 분노억제), 음주문제 사이에 유의한 관련이 있는가?

가설 1-1. 내면화된 수치심은 음주문제와 유의한 정적 관련이 있을 것이다.

가설 1-2. 내면화된 수치심은 분노표출과 유의한 정적 관련이 있을 것이다.

가설 1-3. 내면화된 수치심은 분노억제와 유의한 정적 관련이 있을 것이다.

가설 1-4.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은 음주문제와 유의한 정적 관련이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내면화된 수치심은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을 통해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2-1. 내면화된 수치심은 분노표출을 매개로 음주문제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내면화된 수치심은 분노억제를 매개로 음주문제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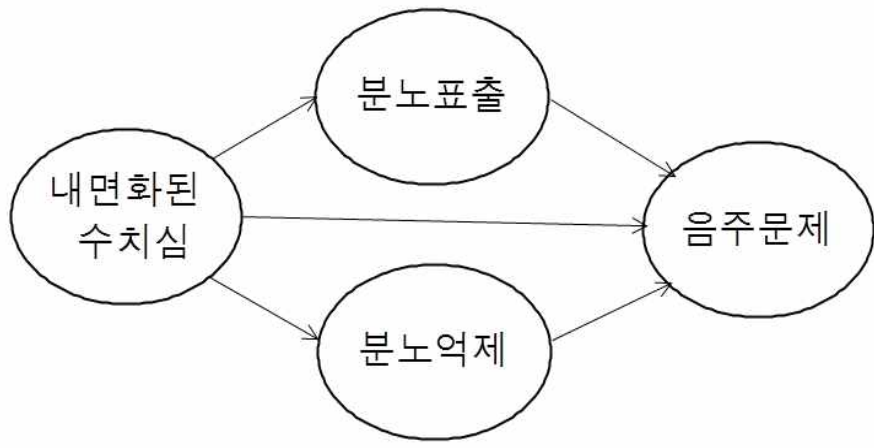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Ⅱ. 이론적 배경

1. 음주문제

1) 음주문제의 정의

음주문제(drinking problem)란 술을 적당한 정도로 조절하여 마시지 못하여 알코올남용(alcohol abuse), 알코올의존(alcohol dependence) 또는 알코올중독(alcoholism)에 이르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음주로 인해 자신이나 주변의 타인에게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Straus, 1984). 음주문제(drinking problem)는 문제음주(problem drinking), 알코올남용(alcohol abuse), 알코올문제(alcohol problem), 알코올중독(alcoholism) 등의 다양한 용어와 혼용되고 있다(Hester & Miller, 1995; 유채영, 2000 재인용).

미국 의학연구소(1990)에서는 음주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알코올남용, 알코올의존 및 문제음주로 나누고 있다. 알코올남용은 과도한 음주로 인해 사회적 기능은 저하되었지만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강박적 충동은 아직까지 주요한 문제가 아닌 상태로 정의되며, 알코올의존은 내성이나 금단증상과 같은 신체적 증상이나 통제력 상실과 같은 심리적인 증상으로 인해 금주를 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한다(Institute of medicine, 1990). 문제음주는 신체적, 사회적, 법적, 경제적 및 가족관계와 대인관계에 문제를 야기하는 음주행동으로(Daley & Marlatt, 1997) 음주 자제의 어려움, 의존 증상, 음주관련 문제 등에 의하여 측정되며, 상대적으로 심각성이 낮은 수준의 음주문제까지 포함한다(Institute of medicine, 1990; 호산나, 2004 재인용).

음주행동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유전적 요인, 심리학적 요인, 행동학적

요인, 가족환경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정신역동학적 이론 등이 있다.

먼저, 유전적 원인에서 보면 알코올 중독 부모의 자녀는 알코올과 관련된 신경전달체계나 뇌기능에 있어서 생물학적으로 취약성을 갖고 태어날 확률이 높다(이용욱, 천성수, 2001).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음주를 하게 되었을 때, 유전적 취약성을 갖고 있지 않은 아이들보다 알코올중독이나 음주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박영이, 2002). 실제로 알코올 중독 부모의 자녀들은 성장한 양육환경과 상관없이 문제음주자가 될 가능성이 일반인들에 비해 4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조현, 2008).

심리학적 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음주행위는 개인의 부정적인 내적감정을 줄이고,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더 많이 충족하려는 것이다(Young, Oei, & Knight, 1990). 긴장, 분노,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개인은 그렇지 않은 개인에 비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음주나 약물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정원철, 2006). 특히 술을 마시으로써 긴장을 감소시킬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일수록 음주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진다(Kushner, Sher, & Erickson, 1999; Lewis & O'Neill, 2000). 알코올 중독자들의 경우, 일반인들에 비해 수치심을 잘 느끼고, 자극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사회적으로 적응을 잘 하지 못한다. 이들은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를 하지 못하며, 이를 음주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반복적인 음주를 하게 된다(박영이, 2002). 이와 같은 기대이론은 음주뿐만 아니라 약물, 도박 등의 중독문제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다(Young et al., 1990).

행동학적 원인에서 보면 음주행동은 부정적인 강화에 의해서는 감소하고 긍정적인 강화에 의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음주행동은 전형적으로 특정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유발된 감정 상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음주를 통해 수치심이나 분노 감정이 줄어드는 경험을 하게 되면, 개인은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해 반복적으로 술을 마시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박영이,

2002; 현수진, 2002).

가족환경 요인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의 음주문제와 가족지지가 자녀의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부모의 음주문제는 자녀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음주문제가 있는 부모를 둔 자녀일수록 음주연령이 빨라지며, 음주기대가 높고 음주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된다(박종순, 2000; Jennison & Johnson, 1997; Sher, 1991). 부모와 자녀간의 지지적인 상호작용 역시 음주문제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적게 받은 자녀일수록 부정적인 정서를 형성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나며, 충분한 지지를 받은 자녀의 경우 음주문제가 적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된다(김연숙, 1991).

사회문화적 요인의 관점에서는 개인이 속해있는 사회의 음주에 대한 태도와 인식이 알코올 중독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요소에는 대학생활 요인, 동료의 영향, 문화적 요인 등이 있다(Hesselbrock, Hesselbrock, & Epstein, 1999).

마지막으로 정신역동학적 이론에 따르면, 발달 단계 중 구강기(생후 12~18개월)에서의 고착이 알코올 중독을 유발한다. 구강 의존적 성격을 지닌 사람은 정서적으로 미숙하고 의존적인 특성을 보이며,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조덕임, 2011). Leed와 Morgenstern(1995)은 알코올을 포함한 물질 남용과 물질 의존을 자기 조절력이 부족한 개인이 심리적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적응적 반응'으로 보았다. 특히, 알코올을 남용하는 사람들은 과도하게 엄격한 초자아를 가지고 있어 개인내적 갈등 구조로 인해 분노나 수치심과 같이 강렬한 감정을 느끼게 되면, 이를 회피하기 위해 술이나 약물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수진, 2002).

적당한 음주는 기분을 조절하거나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과도하거나 습관적인 음주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한다(차소영, 2004). 특히 우울, 불안, 슬픔,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지니는 사람

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기 위한 방법으로 음주나 약물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정수진, 2010). 또한 음주를 통해 긴장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문제성 음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여러 연구들이 있다(Brown, Goldman, Inn, & Anderson, 1980; Kushner et al., 1999; Lewis & O'Neill, 2000; 정수진, 2010 재인용).

본 연구의 대상이 일반대학생 집단이므로 음주문제의 정의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심각성이 낮은 음주문제의 상태까지 포함하는 신행우(1998)의 정의를 참조하였다. 즉, 음주문제란 일반 음주자들이 술을 마시는 동안 혹은 술을 마신 이후에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음주로 인한 장·단기적 문제들을 의미하며, 음주로 인해 직업적, 신체적, 사회적, 대인관계 영역에 이르는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는 음주행동으로 정의한다(신행우, 1998).

2) 대학생 음주문제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의 음주율은 1986년 48.3%, 1995년 63.1%, 2006년에 73.2%로 지난 20년간 약 25% 증가하였다(통계청, 2006). 특히, 성인초기에 해당되는 대학생의 음주형태는 독특한 양상을 나타내는데 다른 생애주기에 비해 과음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동일한 연령대의 일반인에 비해서도 더 잦은 음주빈도와 많은 음주량을 보인다(이한숙, 2004). 대학생의 음주에 대해 우리 사회는 허용적인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 대학생의 경우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난 해방감을 느끼고 싶어 하며, 신체적, 사회적 위험을 감수하면서 모험을 추구하는 경향(risk-taking)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많은 음주를 경험하게 된다(이원재, 2001).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평생 음주율은 97.7%이며, 연간 음주율은 95.7%, 월간 음주율은 92.2%로 매우 높은 것으로 보였다(천성수, 이주열, 이용표, 박종순, 2001). 남학생의 96.8%와 여학생의

95.9%가 음주경험이 있었고, 그 중 14.1%의 대학생들이 알코올을 남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성기 외, 2001). 또한 2005년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주 동안 남학생의 경우 한 자리에서 5잔 이상, 여학생의 경우 4잔 이상 음주를 한 경험이 있는 폭음(binge drink)의 비율도 60.4% 정도로 나타나 미국 대학생의 44%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5; 천성수, 2007; 양난미, 2010 재인용). 양난미(2010)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음주량이 더 많고 음주빈도 역시 더 높기는 하였지만 음주 후에 음주 관련 문제를 경험하는 비율에는 남녀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남녀 대학생들이 음주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음주는 친교 목적의 사교적 음주(social drinking)를 넘어 문제음주(problem drinking)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김해진 외, 2008).

적당한 음주는 사회적 대인관계를 촉진시키며 긴장이나 부정적인 기분을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기분을 고양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으나, 과도하거나 습관적인 음주는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변영순, 2001; 정수진, 2010; 차소영, 2004).

먼저 신체적 측면에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을 비롯한 각종 암질환과 위염, 위궤양과 같은 소화기 질환, 알코올성 치매 그리고 간경화증이나 알코올성 간염 등과 같은 음주관련 문제를 유발시킨다(보건복지부, 2007; 이한숙, 2004). 정신적 측면에서는 기억세포를 파괴하여 기억력을 감퇴시키며 알코올 유도성 정신장애를 유발하기도 한다(변영순, 2001).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는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나 폭력, 강도, 가정폭력과 같은 범죄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생산성 저하와 음주가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되었다(보건복지부, 2007; 양난미, 2010 재인용).

특히 대학생의 음주는 시기상 급성 및 만성질환의 유병보다는 상대적으로 사고나 폭력으로 인한 상해, 음주운전, 흡연, 약물남용, 자살 등의 심리사회적인 음주관련 문제를 더 많이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백성희, 김혜영, 주민

선, 배정은, 이혜련, 2002). 이와 더불어 대학생 음주는 금전적인 손해, 낮은 수업 출석률, 숙취, 음주 후 성폭력, 대인관계 문제 등과 같은 다양한 대학 부정적 행동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양난미, 2009; 장승옥, 2001), 폭음을 하는 대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대학생들에 비해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7배 이상 높고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은 10배 이상 높으며, 학업 수준이 뒤쳐질 가능성은 11배 이상 높다고 보고되었다(류미, 이민규, 신희천, 2010; 양난미 2010 재인용). 음주습관이 음주를 처음 접하게 되는 시기에 형성되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술을 처음 마시게 되는 20대의 음주에 대한 연구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서경현, 김보연, 2011). 이 시기에 습득된 음주 습관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으며(서경현, 정성진, 김성민, 2005; 이원재, 2001), 알코올 중독과 음주량 간의 종단연구에 따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련성의 강도가 약해지긴 했지만 대학생 때의 과음이 10년 후의 알코올 사용장애를 유의하게 예측한다고 보고되었다(O'Neill, Parra, & Sher, 2001; 양난미, 송영이, 2013 재인용).

한편 대학사회에서 형성되는 음주규범은 신입생들에게 대를 이어 전달되며, 하나의 부적절한 대학문화로 정착하게 된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이한숙, 2004). 매년 신입생 환영회나 MT에서 과도한 음주로 인해 대학생들이 사고를 경험하거나 심한 경우 사망하는 사건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음주로 인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주로 알코올중독과 관련된 정신과적, 임상적 관점에서 음주자들의 음주실태나 음주동기를 알아보는 것에 한정되어 왔다(한금선, 양승희, 전경구, 2003). 음주문제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음주문제를 유발 또는 재발하도록 작용하는 개인내적특성 요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김상희, 2011).

2. 내면화된 수치심

1) 내면화된 수치심

수치심이란 자기 자신, 즉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이자 평가적인 반응으로(Yontef, 2008), ‘총체적인 자기를 검토한 결과, 자신의 부족이나 결핍 또는 부적절함에 관한 자아의식으로부터 생겨나는 고통스러운 감정의 한 형태’이다(Kaufman, 1989; Tangney et al., 1992). 수치심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정서이나(정해숙, 정남운, 2011), 개인의 발달과정 동안 수치심이 성격으로 내면화되면 특정 상황에서 수치심을 더 자주 경험하게 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된다(Claesson & Sohlberg, 2002; Kaufman, 1989).

수치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당혹스러운 상황에서 반응하게 되는 순간적인 부끄러움을 상태 수치심(state shame)이라고 하며(Goss, Gillbert, & Allan, 1994), 이러한 수치심이 타인과의 관계 경험에서 중심이 되는 지속적인 현상으로 개인의 성격에 내면화되어 자기에 대한 부정적 경험과 전반적인 지각을 의미하는 것을 특질 수치심(trait shame) 혹은 내면화된 수치심(Internalized shame)(Cook, 2001)이라고 한다(김현주, 이정운, 2011; 이인숙, 최해림, 2005). 내면화된 수치심은 유아기 초기에 형성되어 이후 전 생애에 걸쳐 개인의 내면에 자리 잡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특징을 나타낸다(Cook, 1987; 이재훈, 1999; 장진아, 2006 재인용). 이러한 수치심은 기본적으로 인간관계를 통해 생기는 정서로 개인으로부터 부정적인 행동방식을 이끌어내어(남기숙, 2002), 타인과의 관계에서 친밀감의 부재를 경험하게 한다(최임정, 심혜숙, 2010).

또한 내면화된 수치심은 단순히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특정상황에 대한

부끄러움의 문제가 아닌 ‘자신이 없어졌으면’,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갔으면’과 같이 자기 존재에 대한 공허감과 부적절감을 갖는 문제를 포함하며,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고 부적절한 존재라고 왜곡하여 인식한다(김민경, 2008; 박지현, 2007; 이인숙, 최해림, 2010; 정미라, 2010; Kaufman, 1989). 즉 내면화된 수치심은 개인의 존재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지속적이고 지배적으로 느끼게 하기 때문에 개인이 자신을 광범위하게 평가절하 함으로써 정서적으로 스스로를 무기력하게 만들며 행동적으로는 회피 행동을 이끌어낸다(Tangney & Dearing, 2002).

수치심(shame)과 죄책감(guilt)은 대표적인 자의식 정서(self-conscious emotion)로서(Lewis, 1992), 다양한 심리학적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김미림, 2012; Fossum & Mason, 1986; Potter-Efron, 1989). 수치심과 죄책감의 발달 단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수치심이 죄책감보다 먼저 일어나는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으나, 정확하게 수치심이 나타나는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보인다(유은영, 2012). 수치심과 죄책감은 많은 부분이 중복되며 동시에 활성화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수치심에 대한 연구는 주로 수치심과 죄책감을 구분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수치심이 보다 병리적으로 작용하는 기제라는 것을 입증하는데 집중되었다(Cautin, Overholser, & Goetz, 2001; Gilbert, 2003; Lutwak, Panish, Ferrari, & Razzino, 2001; 박현미, 2011 재인용).

Freud의 정신분석적 관점에서는 죄책감을 중요시한 반면에 수치심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다(Mills, 2005; 박현지, 2012 재인용). 수치심을 노출증이나 관음증과 관련된 성적 충동에 대한 반응으로 보았고, 이러한 본능적 욕구가 부정적으로 평가되었을 때 생겨나는 죄책감에 관심이 집중되었다(Frued, 1953; Scheff & Retzinger, 1991). Piers와 Singer(1953)는 죄책감은 프로이드의 이론처럼 자아와 초자아의 충돌로 인한 반응이지만, 수치심은 자아(ego)와 이상적 자아(ideal ego)간의 충돌로 인해 비롯된다고 보았다. 즉 죄책

감은 개인의 초자아가 강요하는 규범을 위반하는 특정 행위들을 했을 때 나타나는 반면에 수치심은 자신의 이상적 자아의 기대에 따르는 것을 실패했을 때 발생한다(홍은수, 2002). 이러한 구분은 Lewis(1971)와 Erikson(1950)에게 영향을 주었고, 이때부터 수치심이 본격적으로 다양한 심리장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잠재적인 정서로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최창석, 조한익, 2011 재인용).

Lewis(1971)는 수치심과 죄책감 둘 다 부정적인 정서를 포함하지만, 수치심 경험의 부정적 정서의 초점이 자기(self)에 관한 것이라면 죄책감은 주관적 평가의 초점의 대상이 자기가 아닌 행위에 있다고 하여 서로 다른 현상학적 경험을 가져온다고 말했다. 수치심은 전체 자기가 문제시되기 때문에 특정 행동이 문제시되는 죄책감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경험이며(Lewis, 1971), 타인의 평가를 의식하고 실패의 잘못을 자신에게 돌린다는 점에서 죄책감보다 더 부정적인 정서로 간주된다(김미림, 홍혜영, 2013; 남기숙, 2002; 심종은, 이영호, 2000). 다수의 연구들이 정신병리 지표들과 수치심 및 죄책감이 갖는 관계를 검증해왔다. 수치심은 우울이나 불안, 분노, 증오감, 복수심, 적개심, 타인을 비난하는 경향성, 자살 등과 같은 여러 성격 구성개념 및 정신병리 지표와 관련성이 있었던 것에 비해 죄책감은 이들 변인과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이인숙, 최해림, 2005).

이처럼 다양한 정서적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 수치심의 문제인 경우가 많은데, 수치심은 직접적으로 드러내기 어렵고 개인이 다루기 힘든 정서이다(Lewis, 1987). 따라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변인간의 관계를 검증하고 구체적인 경로를 확인함으로써 새로운 치료적 개입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박현지, 2012). Lewis(1987)가 수치심을 ‘숨겨진 정서(hidden emotion)’라고 표현한 것처럼 실제로 문제의 근원이 되는 내면화된 수치심으로부터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 Kaufman(1989)도 수치심이 다른 어떤 정서보다도 자신을 위협하는 근원이며 내면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정서라고 하였다. 또한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을 이해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치심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수치심과 정신 병리와의 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박현지, 2012). 수치심과 관련하여 국내연구로는 분노(정해숙 & 정남운, 2011; 최임정 & 심혜숙, 2010), 우울(심종은 & 이영호, 2000; 이인숙 & 이지연, 2009), 중독(유은영, 2012), 자기에(하은혜, 2010), 외로움(박현지, 2012; 윤희옥, 2010), 사회불안(김민경, 2008), 애착(김현주, 2009; 이인숙, 2005)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심이란 스스로에 대한 정서적 표상의 한 형태로 '총체적인 자기를 검토한 결과,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으며, 부적절하고 무기력하고 작다고 느끼는 자의식으로부터 생겨나는 고통스러운 감정의 한 형태'의 특질수치심(Kaufman, 1989; Tangney et al., 1992; Wells & Jones, 2000; 박윤선, 2007 재인용)인 내면화된 수치심(Internalized shame)으로 정의하였다.

2) 내면화된 수치심과 음주문제의 관계

다양한 정신병리 및 일상생활 속 행동과 정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수치심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이인숙, 최해림, 2005). 과거 프로이트 시대에 히스테리 증상이나 강박증이 주요 심리장애였던 것과 달리, 현대 사회에서는 물질 중독, 물질 남용, 섭식 장애, 경계선적 성격, 자살 및 우울 등이 부각되고 있으며, Kaufman(1989)의 주장처럼 그 중심에는 수치심이 있다. 내면화된 수치심은 Beck 등이 정의내리는 우울과 내적이고, 안정적이며 전체적인 귀인을 한다는 점에서 일치하는 개념이다.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은 사람들은 수치심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더 자주 우울해하고, 사회적 불안과 회피의 정도가 높으며, 타인의 부정적 평가를 두려워하고,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갖고 있다는 많은 연구결과가 있다(김민경, 2008; 심종은, 이영호, 2000; 유은영, 2012; Harder & Zalma, 1990; Lutwak & Ferrari, 1997).

한편 내면화된 수치심은 우울(심중은, 1999; 정형수, 2003; Tangney & Dearing, 2002), 애착(Cook, 1991), 분노정서(남기숙, 2008; 정해숙, 2011; Kaufman, 1989), 외로움(박현지, 2012)을 비롯하여 섭식장애(Murry & Waller, 2002), 편집증(신지혜, 2008) 등 다양한 변인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론적으로 수치심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중독(Cook, 1991; Potter-Efron, 1989)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중독은 유해물질에 의한 신체 증상인 중독(intoxication, 약물 중독)과 알코올이나 마약과 같은 약물의 남용으로 인한 정신적 증상인 중독(addiction, 의존증)으로 구분되는데(유은영, 2012), 음주문제(drinking problem)는 일종의 정신적 의존증으로서 중독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음주문제가 술을 적당한 정도로 조절하지 못하여 알코올을 남용(alcohol abuse)하거나 알코올의존(alcohol dependence) 또는 알코올중독(alcoholism)에 이르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음주문제는 문제음주(problem drinking), 알코올문제(alcohol problem), 알코올중독(alcoholism), 알코올남용(alcohol abuse) 등의 용어와 함께 사용되기 때문이다(Hester & Miller, 1995; 유채영, 2000 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면화된 수치심과 중독경험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내면화된 수치심과 중독 간에 이론적으로 깊은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다(Cook, 1991; Levin, 1987; Morrison, 1983; 유은영, 2012 재인용). 중독행동의 발달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많은 중독 문제들이 유전적인 요인과 심리사회적 요인을 포함한다(Zucker, 1986). 중독의 심리사회적 요인 중 한 가지가 내면화된 수치심이며, 이는 불안하고 안정되지 못한 애착관계와 관련이 있다(Cook, 1991; Tomkins, 1963). 내면화된 수치심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데 대부분 생애 초기의 주 양육자와의 관계속에서 내면화되며, 이후 생애 전체에 걸쳐 성격적인 특징으로 자리 잡게 된다(Cook, 1987, 1991).

Cook(1991)은 애착이론에 근거하여 중독의 발달과정을 설명하였는데, 중독

과 관련된 중요한 주제로 내면화된 수치심을 이야기했다. 중독될 수 있는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강화가 되는 경험은 기분을 긍정적인 상태로 고양시키거나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는 것인데 음주나 약물이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은 사람은 수치심에 지배된 자아개념을 갖기 때문에 수치심이 낮은 사람에 비해 부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느낀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은 사람은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경험들에 중독되는 경향이 있다. 즉, 수치심으로 유발된 부정적인 정서를 개선시키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알코올이나 약물 등을 방어·회피적인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거의 모든 중독행위의 발달 뒤에는 확장된 수치심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초기 양육자와의 애착환경이 존재하며(Cook, 1991), Zucker(1986)의 연구에서도 불안정한 애착을 발생시키는 양육자의 태도와 높은 수준의 내면화된 수치심이 알코올 중독으로의 발달가능성을 높인다고 나타났다. 유은영(2012)의 연구에서도 내면화된 수치심과 중독가능성의 관계에 대해 확인되었다. 일반집단과 알코올중독자모임(A.A)에 참여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내면화된 수치심과 자기통제력, 공격성 그리고 중독가능성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알코올중독집단과 일반집단 모두 내면화된 수치심은 중독 가능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각 집단별 변인의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내면화된 수치심은 알코올중독집단이 일반집단의 평균점수보다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평균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문제음주집단이 일반집단보다 평균적으로 내면화된 수치심을 강하게 느끼고, 중독 가능성이 더 많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내면화된 수치심은 중독 가능성에 대해 고유한 설명량을 가졌는데, 이러한 유은영(2012)의 연구결과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알코올중독과 남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을 제시한 Cook(1991)의 주장에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면화된 수치심과 중독발달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

구에서는 내면화된 수치심과 음주문제가 서로 유의한 상관을 가질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3. 분노표현양식

1) 분노

분노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일부 학자들은 분노를 ‘미미한 수준의 짜증 혹은 곤혹감으로부터 강한 격분이나 격노까지 여러 가지 강도를 지니는 정서 상태’로 정의하였다(Spielberger, Jacobs, Russell, & Crane, 1983; Spielberger, 1985; Yerkes & Dodson, 1980). 우리나라 문화에서 분노는 부정적인 정서로 억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으나, 분노 자체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느끼는 감정이다(정미라, 2010).

Buss와 Perry(1992)는 분노가 공격을 위해 생리적으로 각성되고 준비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했고, Sharkin(1988)은 분노를 그 정도가 달라지며, 생리학적, 정의적, 인지적, 운동적, 그리고 언어적 요소 간에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내적 상태로 보았다(김미림, 2012 재인용).

한편 분노를 자기 보호 장치로서 정의내리는 학자들도 있다. Bilodeau(1992)는 분노가 고통스럽고 파괴적인 감정이지만 위험한 상황에서 생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적응적인 감정이라고 말했고, Novaco(1979)는 분노란 스트레스에 대한 생리적 반응이며, 위험한 상황을 경험했을 때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신체반응으로서 이때의 분노는 신체로 하여금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작용한다고 보았다. 서수균(2004)의 연구에서는 분노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정서이며, 자기방어 체계의 한 부분으로 인간의 생존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밝혔다. 이처럼 분노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대처하는데 상당한 적응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개인으로 하여금

통제감을 느끼게 하고, 실패나 좌절에 직면했을 때 인내심을 촉진해줄 수 있다(Novaco, 1994; 이은주, 2008, 재인용).

Speilberger와 그의 동료들(Spielberger, Johnson, Russell, Crane, Jacobs, & Worden, 1985)은 분노를 특성분노와 상태분노로 구분하였다. 특성분노(trait anger)는 얼마나 자주, 강하게 분노를 일으키는지와 관련되는 개인의 분노 경향성을 말하며, 상태 분노(state anger)는 생리적인 자율신경계의 활성화 또는 흥분을 수반하는 일시적인 정서를 의미한다. 즉, 상태 분노는 일시적인 것으로 시간이나 상황에 따라 그 강도가 변하지만, 특성 분노는 상황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비교적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개인의 분노 유발 경향성이다. 상태분노에서 자신 내부의 분노상태를 표현하는 것을 ‘내적상태분노’라고 하며, 자신 외부를 향한 분노상태를 표현하는 것을 ‘외적상태분노’라 한다(김수, 2007).

특성분노가 높은 사람은 광범위한 상황을 분노를 유발하는 상황으로 인지하여 분노경향성이 낮은 사람에 비해 분노를 더 자주, 강하게 경험하며, 분노상황에 잘 대처하지 못하여 부적절한 방식으로 분노를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박현, 2008; 서지영, 1996). 분노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고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분노를 느끼는 것과 분노라는 정서를 표현하는 것은 다른 개념이다. 같은 수준의 분노를 느끼더라도, 분노를 조절하고 표현하는데 문제가 있을 경우에 개인은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김미림, 홍혜영, 2013; 정해숙, 정남운, 2011; Diguseppe, 1999).

2) 분노표현양식

분노를 느낄 때 사람들은 자신이 화가 났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분노감정을 수치스럽게 여겨 억압하거나 회피하려고 한다(김수, 2007; 이지연, 2009; 정미라, 2007). 이는 분노수준이 유사한 경우에도 사람

에 따라 그 표현방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김미림, 2012).

Spielberger 등(1985)에 따르면 분노표현양식은 분노표출(anger-out), 분노억제(anger-in), 분노통제(anger-control)로 구분된다. 분노표출(anger-out)은 화가 나면 이를 공격적 언어나 신체적 행위, 비난 등을 통해 자신의 분노 감정을 타인이나 대상에게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분노표현방식을 의미한다(Spielberger, Krasner, & Solomon, 1988). 분노억제(anger-in)는 화가 나 있지만 이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 삭히는 것으로, 자신의 분노를 자기내부로 돌리거나 억압하는 것(Averill, 1982; Funkenstein, King, & Drolette, 1954) 혹은 분노 유발 상황과 관련된 사고나 분노 자체의 감정을 억제하거나 부인하는 것을 말한다(Spielberger et al., 1988). 분노통제(anger-control)는 화가 난 상태를 지각하고 분노 유발 상황에 대해 적절하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분노를 조절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냉정을 유지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Spielberger, Reheiser, & Sydeman, 1995). Bilodeau(1992)는 분노표출과 분노억제는 역기능적인 분노표현 행동으로, 분노통제는 기능적인 분노표현 행동으로 분류하였다(Gottlieb, 1999).

적절한 분노표현은 의사소통의 역할을 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하여 관계를 개선시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정미라, 2010), 분노가 부적절한 방식으로 표현될 경우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를 손상시키고 나아가 개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윤경, 2007; 최임정, 심혜숙, 2010). 역기능적인 분노표현 행동은 다양한 심리적 및 신체적 질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많은 심리장애들이 과도한 분노감이나 공격적인 행동을 진단기준에 포함시키고 있다(서수균, 이훈진, 권석만, 2004). 과도한 분노표출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반사회적 행동을 유발하며(이규미, 1999), 심장혈관계 및 소화계 질환과 음주관련 문제와도 높은 관련성을 보인다(김교현, 전검구, 1997; 전검구, 1991).

역기능적인 분노표현 중 특히 분노억제는 신경증적 증상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데, 참아낼 수 없는 분노를 억제하고 잊으려고 노력하게 되면 임시적으로는 화가 가라앉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적으로는 상당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때문에 이후에 심리적, 사회적 부적응을 유발한다(고영진, 안창일, 2003; 김미림, 2012). 또한 유발된 분노가 제대로 표현되지 못하고 억제된다면 분노사고와 감정이 증가하고 분노가 다른 부정적인 행동이나 정서로 대치될 수 있다(Sharkin, 1988; 김미림, 2012 재인용). 분노표출과 마찬가지로 분노억제 역시 심장혈관계 및 소화계 질환과 높은 관련성을 보였으며, 분노를 억제하는 경향이 강한 사람은 우울감이나 절망감, 자살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교현, 2000; 김교현, 전경구, 1997; Cautin et al., 2001; Solomon, 1987; Zaitsoff, Geller, & Strikameswaran, 2002).

이와 같이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양식인 분노표출과 분노억제가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여러 연구들에서 일관되게 강조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분노표현양식을 화가 나는 느낌에 대한 개인의 대응방식이라는 행동적 차원으로 보고 분노표현양식 중 역기능적인 표현양식으로 명명되는 분노표출과 분노억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표현양식의 관계

수치심은 여러 가지 이차적 정서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는데 그 중에서도 분노는 다른 정서에 비해 수치심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류설영, 1998; 장진아, 2006). 분노감정은 수치심을 느끼고 난 후에 생기는 자율적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수치심과 분노는 상호 관련성을 보인다. 수치심이 높은 사람은 분노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며(장진아, 2006; 최임정, 2010; Tangney et al., 1992), 남기숙(2008), 류설영(1998) 등의 연구에

서도 수치심과 분노의 정적상관이 검증되었다.

Lewis(1971)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내면화된 자아 이상(ego ideal)과의 비교로 인해 수치심이 유발되고 스스로를 부끄럽게 생각하게 되어 자신에게 적대감과 비난의 감정을 가지게 되지만, 다시 자신이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한다. 스스로를 작고 무기력하다고 느끼게 되면서 자신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갖게 되는데 다른 사람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과 연결이 되어 그 적대감이 오히려 타인에게 향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Lewis, 1971, 류설영, 1998; 김현주, 2009 재인용). Lewis(1971)는 이러한 방어적 기제를 수치심 경험으로부터 상처받은 자기를 구하기 위한 시도로 보았다. 또한 Nathanson(1992)은 철회, 자기공격, 타인공격이 수치심을 회피하기 위한 방어기제로 작용한다고 하였으며, 남기숙(2002)도 수치심이 공격적이고 타인을 비난하는 경향성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수치심을 전가시키고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감정을 회피한 사람은 수치심 경험으로 인해 무너진 통제감을 되찾고자 하며, 항상 자신이 부당하게 대우 받는다고 생각한다(Lewis, 1971). 이러한 인식은 또 다른 수치심을 유발하는 악순환을 일으킨다(김미림, 2012; 김성애, 2007). 이와 같은 경험적인 연구들이 수치심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적개심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으며(Tangney et al., 1992; Tangney et al., 1996), 수치심과 분노가 일차감정과 이차감정으로 함께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장진아, 2006).

이처럼 수치심은 개인의 정서조절 능력의 손상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은 사람일수록 강렬한 감정을 더 많이 경험하지만, 이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은영, 2010). 즉, 수치심 수준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분노감정을 더 많이 보고할 뿐 아니라(Tangney et al., 1996), 분노억제나 분노표출과 같은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을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정미라, 2010). 또한 Tangney 등(1996)은 수치심을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분노감정을 더 많이 억제하며 분노를 느끼는 스스

로에 대해 분노하고, 분노를 일으키는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경향성을 더 많이 보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경향성에 대해 Tangney(1996)는 수치심을 느끼는 위협적인 상황에 대한 방어적 반응이라고 하였다(정해숙, 정남운, 2011 재인용).

발달과정 동안 수치심이 성격으로 내면화된 사람은 어떤 감정을 느낄 때마다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분노의 감정이 수치스럽게 느껴지면, 화를 낼 때마다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분노의 감정을 억제하게 된다(김민경, 2008). 적절히 표출되어야 할 분노감정을 억압하고 회피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울이나 불안, 신경증과 같은 심리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이규미, 1998; 최임정, 심혜숙, 2010).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분노를 공격적으로 표출하거나 무조건적으로 회피하는 태도는 그 밑에 깔린 내면화된 수치심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없게 만든다(김성애, 2007). 분노와 내면화된 수치심간의 관계를 이해하여 분노가 수치심에 대한 방어적인 감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분노의 원인이 충분히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김미림, 홍혜영, 2013).

수치심과 분노 및 분노표현양식을 다룬 국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억제, 분노표출 간에 정적상관이 나타났고 분노통제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특히, 내면화된 수치심의 모든 하위변인이 분노억제와 정적상관을 보였다(최임정, 심혜숙, 2010). 정해숙과 정남운(2011)은 남녀 대학생 모두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을수록 분노억제가 높아지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는 수치심 수준이 높을수록 분노감정을 더 많이 보고할 뿐만 아니라 부적응적인 방식으로 반응한다고 말한 Tangney 등(1996)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김현주와 이정운(2011)의 연구에서도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표출 및 분노억제는 정적상관을 보였고, 분노통제는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들은 내면화된 수치심이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인 분노표출, 분노억제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수치심을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높은 수준의 분노 경향성을 보일 것이며,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인 분노표출과 분노억제를 주된 분노표현의 방식으로 사용할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4) 분노표현양식과 음주문제의 관계

분노, 불안, 우울, 긴장 등을 포함하는 부정적 정서는 개인에게 술을 마시고 싶은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그 중에서도 분노는 음주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변인 중 하나이다(김해진 외, 2008; 박영이, 2002; 양난미, 2010; Gaher, Simons, Jacobs, & Meyer, 2006).

알코올의존 환자들을 대상으로 음주행동을 증가시키는 내적자극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정서 특히, 화가 났을 때가 전체 빈도의 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한귀원, 김명정, 김성곤, 변원탄, 1996). 또한 김인수, 백기청, 김중빈(1994)의 연구에서도 음주동기를 묻는 문항 중에 사회적 스트레스와 분노감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Cautin(2001)은 청소년기의 분노가 음주와 관련된 외현화문제로 나타난다고 보았고, Weinder(2001)의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기의 알코올 소비가 분노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cCrea(1996)는 알코올을 남용하는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특성 분노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발견하였고, Deffenbacher(1992)는 분노감이 높은 사람들이 음주를 더 많이 하며, 더 많이 취한다고 하였다(조덕임, 2011 재인용).

Monti(1985)는 분노 등을 포함한 부정적인 감정은 개인으로 하여금 술에 취하고 싶은 충동을 불러일으켜 음주문제를 경험하는 사람들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김수, 2007 재인용). 분노 수준이 서로 다른 집단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분노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음주문제를 더 많이 보였는데, 이는 술을 마시는 행동이 분노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자 또한 분노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박영

이, 2002). 이원재(2004)의 연구에서도 분노,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음주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분노와 음주문제간의 관계를 다룬 여러 연구들에서 분노와 음주행위 및 음주문제가 유의한 연관성이 있음이 검증되고 있다(김인수 외, 1994; 김해진 외, 2008; 박영이, 2002; 한귀원 외, 1996; 허지영, 1998; Cautin et al., 2001; Leibsohn, 1992; Vanriette, 2001).

특성분노와 문제음주와의 상관을 살펴보면, 박영이(2002)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집단에서 .30정도로 나타났고, 김해진 등(2008)의 연구에서는 .31정도로 나타나 특성분노와 문제음주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높은 특성분노를 보이는 사람들은 분노를 더 자주, 강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어 분노에 잘 대처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방식으로 분노를 표현하는 특징을 지닌다(Deffenbacher, Demm, & Brandon, 1986; Spielberger et al., 1985). 즉, 이들은 분노에 대처하는데 있어서 분노억제와 분노표출을 많이 사용한다(김해진, 2006; 서지영, 1996).

Mustante와 treiber(2000)는 분노표현의 방식으로 분노억제를 많이 사용하는 여학생이 더 많이 음주를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최근에 국내연구에서는 분노표출이 많은 여성의 음주율이 분노표출이 낮은 여성의 음주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박영주 외, 2004 재인용). 김해진 등(2008)은 분노표현양식과 음주문제의 관계에서 분노표출이 높을수록, 그리고 분노통제가 낮을수록 음주문제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결과는 박영주 등(2004)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이와 같이 상반되는 연구결과는 문화적인 차이에 의한 것일 수 있는데, 우리나라 대학생의 경우, 분노를 표출하는 수단으로 음주행위를 많이 하며 외현화하는 경향이 있어 음주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김해진 외, 2008). 이렇듯 음주문제는 분노를 무분별하게 표출하거나 무조건적으로 억제하고 회피하는 역기능적인 분노표현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박영주 외, 2004).

한편 효율적인 분노표현이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도 있다. 고영인(1994)은 자기노출, 자기표출 및 자기표현의 개념을 통합하여 분노의 ‘자기주장적 표현’이라고 명명하였는데, 이는 Spielberg 등(1995)의 분노표현 양식 중 분노통제와 유사한 개념이다. 자기주장적 표현이란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자신의 분노 정서를 언어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것’으로, 특질 분노수준을 통제했을 때 자기주장적 표현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분노표현 효율성이 높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것으로 나타났다(김득란, 1986; 김미란, 2001; 전성희, 1995; Ellenson, 1982). 그러므로 선천적으로 분노가 높은 사람도 효율적인 분노표현양식을 많이 사용한다면 행동상의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김해진 외, 2008).

지금까지의 분노 및 분노표현양식과 음주문제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알코올 중독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알코올 의존 환자들은 부정적인 정서인 분노를 조절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에 어려움을 보였는데 이들은 상태분노와 특성분노가 모두 높게 나타났고 분노조절 수준은 낮았으며, 분노표출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미리, 2006). 알코올 의존 집단에서 분노와 부적응적인 분노표현양식이 음주행동을 예측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일반 성인에 비해 높은 음주율을 보이는 대학생 집단도 분노를 많이 경험할수록, 분노표현이 역기능적일수록 음주행동이 많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음주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이 시사된다(김해진 외, 2008).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특성분노는 음주행위를 동기화하고 유지시키는 부적 정서요인이며, 이러한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음주문제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시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내적 변인으로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양식인 분노표출과 분노억제를 선정하여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전북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6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회수된 610부의 자료 중 문항을 빠뜨리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6부를 제외한 총 604부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 604명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 307명(50.8%), 여학생 297명(49.2%)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이 거의 유사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학년은 1학년이 185명(30.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학년이 171명(28.3%), 3학년이 141명(23.3%), 2학년이 89명(14.7%)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연령은 만 18-27세에 주로 분포되어 있었으며, 평균연령은 21.9세(SD=2.49)로 나타났다. 전공은 자연·이공계열이 189명(31.3%)으로 가장 많았고, 예체능계열은 120명(19.9%), 의료·간호계열은 112명(18.5%), 인문·사회계열은 65명(10.8%) 순으로 조사되었다. 거주상태별로 살펴보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학생이 244명(40.4%)으로 가장 많았고, 혼자서 자취하는 학생이 128명(21.2%),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이 166명(27.5%), 친구 혹은 형제와 자취하는 학생이 44명(7.2%)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604)			
특성	구분	수	%
성별	남	307	50.8
	여	297	49.2
나이(만)	18-21세	297	49.1
	22-26세	286	47.3
	27세 이상	21	3.6
학년	1	185	30.6
	2	89	14.7
	3	141	23.3
	4	171	28.3
	기타	18	3.0
	전공	인문·사회	65
법학		53	8.8
상경		37	6.1
사범		19	3.1
자연·이공		189	31.3
생활과학		9	1.5
의료·간호		112	18.5
예체능		120	19.9
거주형태	부모와 거주	244	40.4
	혼자서 자취	128	21.2
	친구와 자취	25	4.1
	형제와 자취	19	3.1
	친척집 거주	7	1.2
	기숙사	166	27.5
	하숙	10	1.7
	그 외	5	0.8
	계	604	100

2. 측정도구

1) 내면화된 수치심

본 연구에서는 Cook(1987)이 개발한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nternalized Shame Scale: ISS)를 이인숙과 최해림(2005)이 타당화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는 총 30문항으로 수치심을 측정하는 24문항과 자존감을 측정하는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존감 척도는 문항이 같은 방향으로 주어져 있을 경우 한 방향으로 대답하려는 경향을 제어하기 위해 Rosenberg 자존감 척도를 수치심 척도에 포함시킨 것이다. 수치심 점수는 자존감 문항을 제외한 24문항으로 측정되며 Likert식 5점 척도로 하위영역의 점수를 합한 총점이 높을수록 수치심의 정도가 큰 것을 의미한다.

이인숙, 최해림은 Cook의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4개 요인 구조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각각 부적절감, 공허감, 자기차별, 실수 불안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부적절감 영역은 자기 자신에 대해 평가절하하고, 타인 역시 자신을 무시하고 알볼 것이라고 생각하며 소외감을 느끼는 특성(예: '나는 내 자신이 매우 작고 보잘 것 없이 느껴진다.')을 나타낸다. 공허감 영역은 내적으로 채워지지 않은 느낌과 자신의 신체와 감정에 대해 통제감을 잃은 것처럼 느끼는 특성(예: '나는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음을 느낀다.')을 포함한다. 자기차별 영역은 완벽을 추구하지만 부족함을 느끼며 고통스러운 사건에 대해 반추하고, 타인에게 과도하게 노출 되었다고 느낄 때 자신의 존재감을 없애고 싶어 하거나 실수를 했을 때 자신을 공격하고자 하는 특성(예: '나는 실수를 하면 몽둥이로 내 자신의 머리를 내려치고 싶다.')을 나타낸다. 실수 불안 영역은 타인의 평가를 두려워하며, 자신의 결점이 타인에게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특성(예: '나는 다른 사람 앞에서 내 결점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 무섭다.')을 포함한다.

Cook의 연구에서 보고한 검사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 α)는 임상집단이 .96, 비임상집단이 .95였으며,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4, 이인숙, 최혜림의 연구에서는 .93의 신뢰도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전체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 α)는 .93이며, 각각의 하위 요인별 문항구성과 내적 일치도 계수는 <표 2>과 같다.

<표 2> 내면화된 수치심 하위영역 구성

하위영역	해당문항	Cronbach' α
부적절감	1, 2, 3, 5, 7, 8, 10, 11, 12, 24 (10문항)	.89
공허감	23, 26, 27, 29, 30 (5문항)	.84
자기차별	15, 17, 20, 22, 25 (5문항)	.73
실수 불안	6, 13, 16, 19 (4문항)	.75
전 체	총 24문항	.93

*4, 9, 14, 18, 21, 28 (6문항)은 채점하지 않음

2)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

본 연구에서는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을 측정하기 위해 Spielberger, Krasner와 Solomon(1988)이 개발한 상태-특성 분노표현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를 전검구, 한덕웅, 이장호(1997)가 표준화하고, 박진숙(2007)이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특성분노(Trait Anger: 평소 분노경험에 대한 개인의 기질적인 차이) 10문항, 상태분노(State Anger: 현재 경험하는 분노의 정도) 10문항, 분노표출(Anger Out: 분노를 타인이나 외부 사물을 향해 표현하는 것) 8문항, 분노억제(Anger In: 분노를 경험하지만 억제하는 것) 8문항, 분노통제(Anger Control: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8문항으로 총 4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태분노, 특성분노 하위척도를 제외한 분노표현양식 3가지 중 역기능적 분노표현척도로 명명되는 분노표출(예: ‘화가 날 때 나는 사람들과 말다툼을 한다.’)과 분노억제(예: ‘화가 날 때 나는 사람들을 피한다.’) 하위척도만 포함시켰다. 원척도의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거의 항상 그렇다’(4점)까지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영역별 분노표현을 많이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전점구 등(1997)의 연구에서 분노표현 척도의 하위영역별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 α)는 분노표출 .67, 분노억제 .67로 나타났으며, 박진숙(2007)의 연구에서는 분노표출 .78, 분노억제 .77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분노표출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 α)는 .77, 분노억제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 α)는 .69로 나타났다.

<표 3>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 하위영역 구성

하위영역	해당문항	Cronbach’ α
분노표출	1, 5, 6, 8, 10, 13, 15, 16 (8문항)	.77
분노억제	2, 3, 4, 7, 9, 11, 12, 14 (8문항)	.69

3) 음주문제

본 연구에서는 음주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신행우(1998)가 개발한 ‘음주문제 척도’를 사용하였다. 신행우(1998)는 음주문제를 ‘일반 음주자들이 술을 마시는 동안 혹은 술을 마신 이후에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음주로 인한 장·단기적 문제들’로 정의하고 있으며, 총 20문항으로 구성된 이 척도는 직업 및 사회적 기능의 손상(예: ‘술 마시는 것 때문에 수업이나 성적취득 또는 일하는데 지장이 있다.’), 행동상의 문제(예: ‘술을 마신 후 과격한 행동을 한 적이 있다.’), 가족

및 대인관계의 손상(예: ‘술을 마신 후 가족이나 친구 등과 말다툼을 한 적이 있다.’)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의 문항 중 세 개의 문항은 행동상의 문제와 가족 및 대인관계의 손상을 중복하여 측정하고 있다.

각 문항은 음주문제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며, 이에 대한 응답은 각 문항이 가리키는 음주문제를 지난 3개월 동안 얼마나 자주 경험하였는지를 ‘전혀 그런 적 없다’(1점)에서부터 ‘거의 항상 그렇다’(5점)까지 측정되는 5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이루어져 있다. 척도의 점수를 합하여 음주문제의 점수로 산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음주로 인한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본다. 신행우(1998)의 연구에서 음주문제 척도의 전체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 α)는 .9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하위 요인별 문항구성과 내적 일치도 계수는 <표 4>과 같다.

<표 4> 음주문제 하위영역 구성

하위영역	해당문항	Cronbach' α
직업 및 사회적 기능의 손상	1, 3, 5, 16, 18, 20 (6문항)	.84
행동상의 문제	2, 4, 7, 8, 10, 11, 14, 15, 19 (9문항)	.87
가족 및 대인관계의 손상	6, 10, 12, 13, 17 (5문항)	.80
전 체	총 20문항	.93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18.0과 Amo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에 사용될 척도의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내적 일치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자료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내면화된 수치심, 역기능적 분노 표현양식, 음주문제 간의 관계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 분석을 시행하였다.

셋째, 구조방정식 모형(SEM :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통해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과 경쟁모형(완전매개모형)을 비교하고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넷째, 내면화된 수치심이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분노표출, 분노억제)이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Preacher와 Hayes(2008)가 제안한 다중매개모형(multiple mediator model) 분석 절차에 따라 SPSS macro를 사용하여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Preacher와 Hayes(2008)에 따르면, 여러 개의 변인이 병렬적으로 매개하는 경우 하나의 매개변인을 가정한 단일매개모형을 각각 검증하는 것보다 하나의 다중매개모형을 검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를 통해, 예측변인과 준거변인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으며, 다른 매개변인이 존재하는 모형에서 특정한 변인이 매개하는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프로그램인 AMOS를 사용하게 되면 두 매개변인이 병렬로 제시되는 매개모형에서 매개변인들이 갖는 전체 매개효과를 검증할 뿐 개별 매개변인의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도 검증은 제시하지 못한다(서영석, 2010 재인용). 따라서 Preacher와 Hayes(2008)가 개발한 SPSS macro가 제공하는 부트스트랩(Bootstrap) 신뢰구간 가설검정 절차를 통해 전체 매개효과뿐만 아니라 매개변인 각각이 갖는 매개효과에 대한 추정치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IV. 연구결과

1. 음주 관련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604명 중 음주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학생은 589명으로 전체학생의 97.5%에 해당하였다. 이를 성별로 분석해보면, <표 5>와 같다. 남학생의 경우에 음주경험이 없다고 보고한 이는 307명 중 4명으로 0.7%이었으며, 여학생의 경우는 297명 중 11명으로 1.8%이었다. 즉 대학생의 97.5%가 음주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성별에 따른 음주경험

음주경험	성별	남	여	계
	유		303명(99.3%)	286명(98.2%)
무		4명(0.7%)	11명(1.8%)	15명(2.5%)
계		307명(100%)	297명(100%)	604명(100%)

본 연구 대상자들의 음주관련 특성 및 실태를 살펴보았으며, 그 내용은 <표 6>에 제시하였다. 음주빈도에 있어서는 전체 응답자의 183명(30.3%)이 한 달에 2-3회 음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1주에 1회 음주하는 대학생이 150명(24.8%)으로 많았고, 한 달에 1회 정도 음주하는 대학생은 101명(16.7%)이었다. 1주에 2-3회 음주를 하는 대학생은 91명(15.1%)이었으며, 1주에 4회 이상 음주를 하는 대학생은 21명(3.5%)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1회 음주 시 평균 음주량을 살펴보면, 1회 맥주 500cc 3-4잔(소주 1병)이 187명(31.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맥주 500cc 5-7잔(소주 1병 반-2병)이 130명(21.5%), 맥주 500cc 2잔(소주 4잔)이 120명(19.9%)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의 604명 중 364명에 해당하는 60.3%의 평소 음주량이 소주 1병을 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지난 6개월 동안 1회 최대 음주량을 살펴보면, 맥주 500cc 10-19잔(소주 2병 반-5병)이 226명(37.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맥주 500cc 5-9잔(소주 1병 반-2병)이 175명(29.0%), 맥주 500cc 4잔 이하(소주 1병)는 134명(22.2%), 맥주 500cc 20잔 이상(소주 5병 이상)은 66명(11.0%)과 같은 순서를 나타냈다.

한편 연구 대상자가 처음 음주를 시작한 나이는 평균 만 18.1세(SD=1.65)였다. 이들이 주로 마시는 술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면, 맥주를 주로 마시는 경우가 173명(28.6%)으로 가장 많았고, 소주는 143명(23.7%)이었으며, ‘어떤 종류나 다 잘 마신다’는 응답도 165명(27.3%)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로 음주를 함께 하는 대상은 친구 및 동료가 492명(81.5%)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를 하는 상황 역시 친구들과 어울릴 때라고 응답한 경우가 401명(66.4%)으로 가장 많았다.

<표 6> 연구 대상자의 음주관련특성

(n=604)			
특성	구분	수	%
음주경험	유	589	97.5
	무	15	2.5
첫 음주 나이	15세 이전	45	7.5
	16-18세	270	44.7
	19세 이상	288	47.8
음주 빈도	전혀 안 마신다	15	2.5
	1년에 3-4회 이하	43	7.1
	한 달에 1회	101	16.7
	한 달에 2-3회	183	30.3
	1주에 1회	150	24.8
	1주에 2-3회	91	15.1
	1주에 4회 이상	21	3.5
평균음주량 (맥주500cc)	맥주250cc 미만(소주1잔)	33	5.5
	1잔(소주2잔)	85	14.1
	2잔(소주4잔)	120	19.9

(n=604)

특성	구분	수	%
	3-4잔(소주1병)	187	31.0
	5-7잔(소주1병 반-2병)	130	21.5
	8잔 이상(소주2병 이상)	47	7.8
최대음주량 (맥주500cc)	4잔 이하(소주 1병)	134	22.2
	5-9잔(소주 1병 반-2병)	175	29.0
	10-19잔(소주 2병 반-5병)	226	37.4
	20잔 이상(소주 5병 이상)	66	11.0
주로 마시는 술 종류	소주	143	23.7
	맥주	173	28.6
	막걸리 및 전통주	22	3.6
	혼합주(소주+맥주)	72	11.9
	과일주	23	3.8
	양주	4	0.7
	어떤 종류나 잘 마신다	165	27.3
음주대상	친구 및 동료	492	81.5
	이성친구(애인)	32	5.3
	가족	15	2.5
	선후배	50	8.3
	처음 만난 사람	1	0.2
	혼자 마신다	11	1.8
음주상황	친구들과 어울릴 때	401	66.4
	선배의 권유로	16	2.6
	특별한 모임이 있을 때	126	20.9
	기분이 우울할 때	22	3.6
	화나는 일이 있을 때	4	0.7
	특별히 할 일 없을 때	33	5.5
	계	604	100

2. 주요 변인들의 상관계수 및 평균, 표준편차

내면화된 수치심,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 음주문제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변인 간의 상관계수 및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그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내면화된 수치심과 음주문제간의 관계는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r=.358, p<.001$)가 있었다. 또한 내면화된 수치심의 네 하위요인인 부적절감($r=.358, p<.001$), 공허감($r=.333, p<.001$), 자기처벌($r=.332, p<.001$), 실수 불안($r=.131, p<.001$)도 음주문제와 모두 유의한 정적 관련이 있었다.

둘째, 내면화된 수치심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의 관계에서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분노표출과 정적 상관($r=.251, p<.001$)을 보였고, 또한 분노억제와 높은 정적 상관($r=.471, p<.001$)을 보였다. 이는 내면화된 수치심 수준이 높을수록 분노표출과 분노억제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내면화된 수치심의 하위요인인 실수 불안은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 중 분노억제와 높은 정적 상관관계($r=.480, p<.001$)를 나타냈다.

셋째,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과 음주문제간의 관계는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r=.310, p<.001$)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분노표출은 음주문제와 유의한 정적 상관($r=.318, p<.001$)을 보였으며, 분노억제도 음주문제와 낮은 정적 상관($r=.136, p<.01$)을 보였다. 분노표출은 음주문제의 세 하위요인인 직업 및 사회적 기능의 손상, 행동상의 문제, 가족 및 대인관계의 손상과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특히 행동상의 문제($r=.316, p<.001$)와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이 있었다.

<표 7> 주요 변인의 상관계수 및 평균, 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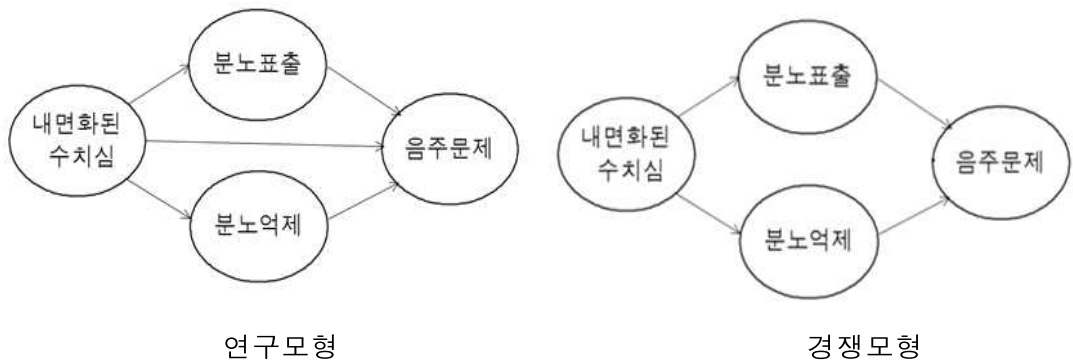
(n=604)											
	1	2	3	4	5	6	7	8	9	10	11
1	-										
2	.914***	-									
3	.852***	.676***	-								
4	.854***	.685***	.693***	-							
5	.744***	.572***	.532***	.570***	-						
6	.251***	.177***	.276***	.246***	.179***	-					
7	.471***	.393***	.373***	.391***	.480***	.172***	-				
8	.358***	.358***	.333***	.332***	.131***	.318***	.136**	-			
9	.316***	.314***	.300***	.269***	.143***	.270***	.122**	.854***	-		
10	.316***	.318***	.292***	.305***	.101*	.316***	.122**	.921***	.646***	-	
11	.318***	.319***	.293***	.309***	.104*	.244***	.116**	.873***	.615***	.857***	-
평균	48.27	18.32	10.04	9.79	10.12	18.23	19.22	32.48	11.19	12.97	8.16
SD	11.43	5.09	3.14	2.75	2.35	4.56	3.53	11.66	4.39	5.17	3.55

* $p < .05$ ** $p < .01$ *** $p < .001$

주) 1. 내면화된 수치심 2. 부적절감 3. 공허감 4. 자기차별 5. 실수 불안 6. 분노표출 7. 분노억제 8. 음주문제
9. 직업 및 사회적 기능의 손상 10. 행동상의 문제 11. 가족 및 대인관계의 손상

3. 구조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내면화된 수치심과 음주문제의 관계에서 분노표출과 분노억제를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구조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내면화된 수치심과 음주문제에 대한 분노표출과 분노억제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을 각각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으로 설정하고, 모형 간 비교를 통해 매개가 완전하게 이루어졌는지, 혹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분석하였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은 [그림 2]와 같다. 연구모형은 내면화된 수치심이 음주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내면화된 수치심이 분노표출과 분노억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는 부분매개모형이며, 경쟁모형은 내면화된 수치심이 음주문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며, 분노표출과 분노억제를 통해서만 음주문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는 완전매개모형이다.



[그림 2]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본 연구에서는 내면화된 수치심과 음주문제에 대한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을 각각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으로 설정하고, 이들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χ^2 검증은 경쟁모형이 연구모형에 내포(nested)되어 있는 경우 모형비교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각 모형들의 χ^2 값과 자유도의 증가 혹은 감소에 따른 유의도 수준을 비교함으로써 최종모형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 때 $p < .05$ 유의도 수준에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이 차이가 없다는 영가설을 기각하기 위해서는 자유도 1의 차이 시 χ^2 값에서 3.84 이상 차이를 보여야 한다. 두 모형간의 χ^2 차이가 유의미하면 두 모형 간 차이가 없다는 영가설을 기각하고 자유도가 더 작은 모형을 선택한다. 만약 두 모형간의 χ^2 값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는다면 이는 두 모형이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간결의 원칙’에 따라 자유도가 더 큰 모형이 선호된다(배병렬, 2011).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특정 모형이 실제 자료와 어느 정도 부합되는지 검증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χ^2 검증을 할 수 있으나, χ^2 은 표본 크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모형을 쉽게 기각한다는 문제점이 있다(홍세희, 2000). 따라서 적합도 지수인 GFI, CFI, TLI, RMSEA를 사용하여 모형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일반적으로 GFI, CFI, TLI는 .90 이상일 때 그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하며, RMSEA는 .05 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5~.08 사이의 값은 괜찮은 적합도, .10 이하이면 보통 적합도, .10 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로 간주한다(홍세희, 2000).

본 연구에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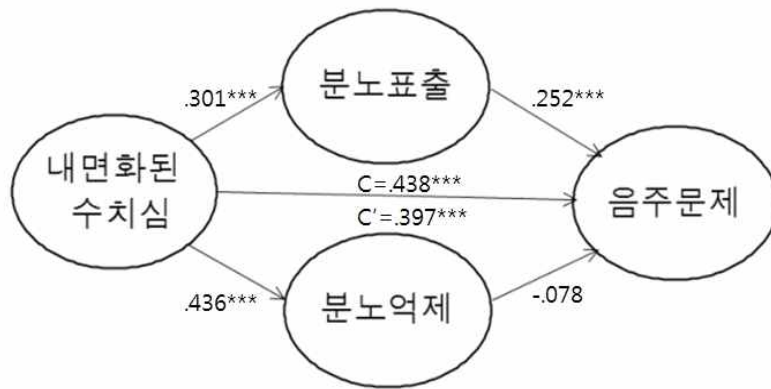
<표 8>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 비교

	χ^2	df	GFI	CFI	TLI	RMSEA (90%신뢰구간)	$\Delta\chi^2$
연구모형(부분매개)	2.401	1	.998	.995	.973	.048(.000-.130)	

먼저 부분매개모형인 연구모형의 적합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chi^2=2.401$, $p>.05$, GFI, CFI, TLI 값은 모두 .95 이상으로 좋은 적합도를 보였고, RMSEA 값도 .048로 좋은 적합도를 나타냈다. χ^2 값은 2.401로 이 값이 $\alpha=.05$ 에서 자유도가 1인 χ^2 분포의 임계치인 3.84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연구모형은 기각되지 않는다. 경쟁모형을 연구모형과 비교해보면, $\chi^2=57.906$, $p<.05$ 이고, CFI와 TLI 값은 각각 .820, .460, RMSEA 값은 .10 이상으로 나타나 적합도 지수가 적합성 기준 수치이하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모형이 경쟁모형보다 더 적합한 모형으로 채택되었다. 또한 경쟁모형은 연구모형에 내포(nested)관계에 있으므로 두 모형의 차이 규명을 위해 χ^2 값을 비교한 결과, 연구모형 즉, 부분매개모형의 χ^2 값은 2.401, 완전매개모형의 χ^2 값은 57.906으로, χ^2 값의 차이는 55.505로 나타났다. 이 값은 유의수준을 .05로 설정했을 때의 임계치인 3.84보다 큰 것으로, 이는 완전매개모형에서 부분매개모형으로 바꾸었을 때 χ^2 값이 유의하게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분매개모형이 완전매개모형에 비해 데이터를 더 잘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4.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는 Preacher와 Hayes(2008)가 제안한 다중매개모델(multiple mediator model) 절차에 따라 분석을 실시하였다.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표출, 분노억제, 음주문제의 관계에 대한 다중매개모델과 분석결과를 [그림 3]과 <표 9>에 제시하였다.



[그림 3] 내면화된 수치심과 음주문제의 관계에서
분노표출과 분노억제의 다중매개모델

c는 매개변인이 없는 모형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이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치

c'는 다중매개모형에서의 직접효과 크기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3]에 나타난 직접효과를 살펴보면 첫째, 매개를 가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은 음주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B=.438, p < .001$). 이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을수록 음주문제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내면화된 수치심이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분노표출과

분노억제의 매개효과 모형에서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여전히 음주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397, p<.001$).

셋째, 내면화된 수치심은 분노표출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었고($B=.301, p<.001$), 분노표출도 음주문제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었다($B=.252, p<.001$). 마지막으로, 내면화된 수치심은 분노억제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었으나($B=.436, p<.001$), 분노억제와 음주문제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0778, p>.05$).

<표 9> 개별효과 모수치 검증

	주요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연구 모형	내면화된 수치심 → 분노표출	.300 ***	.047	.251
	분노표출 → 음주문제	.252 ***	.039	.246
	내면화된 수치심 → 분노억제	.436 ***	.033	.471
	분노억제 → 음주문제	-.078	.055	-.059
	내면화된 수치심 → 음주문제	.397 ***	.052	.323

* $p<.05$ ** $p<.01$ *** $p<.001$

Preacher와 Hayes(2008)는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분석 방법을 정교화 하였고, 매개효과의 통계적 검증에 있어서 Sobel(1982) 검증을 사용하는 것보다 부트스트랩(Bootstrap) 절차를 따르는 것을 추천하였다(김홍석, 이정희, 정경연, 2012 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이 분노표출과 분노억제를 매개로 하여 음주문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지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 방법으로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개별 매개효과의 유의도를 평가하기 위해 95%의 신뢰수준을 사용하였고,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개별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보았다. 부트스트랩은 10,000번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0>에 제시하였다.

개별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내면화된 수치심과 음주문제의 관계에서 분노표

출의 매개효과는 95% 신뢰구간이 [.0396, .1250]으로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분노표출의 매개효과가 유의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내면화된 수치심과 음주문제의 관계에서 분노억제의 매개효과는 95%의 신뢰구간이 [-.0776, .0089]로 0을 포함하기 때문에, 분노억제를 포함하는 간접경로의 효과가 0이라는 영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내면화된 수치심은 분노표출을 매개로 하여 음주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내면화된 수치심은 분노표출에 영향을 미치고, 분노를 역기능적으로 표출할수록 음주문제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내면화된 수치심이 분노억제에 영향을 줌으로써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표 10> 매개효과에 대한 부트스트랩 검증 결과

매개경로	비표준화계수		SE	95%신뢰구간 Bootstrap percentile	
	Data	Boot		하한	상한
내면화된수치심 → 분노표출 → 음주문제	.0757*	.0764*	.0213	.0396	.1250
내면화된수치심 → 분노억제 → 음주문제	-.0339	-.0337	.0220	-.0776	.0089

* $p < .05$

V. 논 의

1. 결과에 대한 논의

본 연구는 과도하고 습관적인 음주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하여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내적 변인으로 내면화된 수치심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을 선정하여, 이들 변인들이 음주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상관분석을 통해 각 변수들이 유의한 정적관련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구조방정식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검증을 통해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고, 모형 간 비교와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끝으로 Preacher와 Hayes(2008)가 제안한 다중매개모형(multiple mediator model) 분석 절차에 따라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내면화된 수치심,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 음주문제 사이에 유의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 가정했던 연구가설은 지지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면화된 수치심의 하위요인인 부적절감, 공허감, 자기차별, 실수 불안은 음주문제와 유의한 정적 관련이 있었는데, 이처럼 내면화된 수치심과 음주문제가 서로 유의한 정적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는 수치심을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음주행동이 음주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내면화된 수치심은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양식의 하위유형인 분노표출 및 분노억제와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분노감정과 관련이 있으며,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은 사람은 분노를 역기능적으로 표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들은 표면적으로 드러

나는 분노만을 인식하고, 이를 무조건적으로 억제하거나 또는 적대적으로 분노를 폭발하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내면화된 수치심과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양식인 분노표출, 분노억제가 정적 관련이 있다는 정해숙, 정남운(2011)과 최임정(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수치심 수준이 높을수록 분노감정을 더 많이 보고할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방식으로 분노감정에 반응한다고 보고한 Tangney 등(1996)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특히 내면화된 수치심은 분노표출보다 분노억제와 상관이 더 높았는데, 발달과정 동안 수치심이 성격으로 내면화된 사람일수록 어떤 감정을 느낄 때마다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났을 때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억압하고 방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민경, 2008). 내면화된 수치심의 하위요인인 실수 불안은 분노억제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타인의 평가를 두려워하며 자신의 결점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일수록, 분노정서를 경험할 때 억압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과 음주문제의 상관분석 결과, 분노표출과 음주문제는 유의한 정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노표출은 음주문제의 세 하위요인 중 행동상의 문제와 가장 큰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역기능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음주문제 중에서도 외현화에 해당되는 문제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분노억제는 음주문제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관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내면화된 수치심과 음주문제의 관계에서 분노표출과 분노억제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부분매개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고, 완전매개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여 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분노표출과 분노억제가 내면화된 수치심과 음주문제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연구모형이 더 적합한 모형으로 채택되었다.

셋째, Preacher와 Hayes(2008)의 다중매개모형(multiple mediator model) 분

석 절차에 따라 매개분석을 실시한 결과, 내면화된 수치심은 매개를 가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음주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면화된 수치심은 분노표출과 분노억제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분노표출과 분노억제의 부분매개 모형에서도 여전히 음주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분노표출은 음주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분노억제는 음주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음주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분노표출을 통해 음주문제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분노억제는 내면화된 수치심과 음주문제의 관계를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내면화된 수치심과 음주문제의 관련성은 내면화된 수치심이 알코올중독과 남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유은영(2012)과 Cook(1991), Potter-Efron(1989)의 연구결과를 경험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내면화된 수치심과 일종의 중독에 속하는 음주문제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였는데, 두 변인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밝힌 것이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분노표출만이 음주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는 본 연구 결과는 김해진(2006)과 박영주 등(2004)의 연구에서 분노표출이 많은 사람일수록 음주문제가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내면화된 수치심이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의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 절차를 실시한 결과, 내면화된 수치심과 음주문제의 관계에서 분노표출의 매개효과만이 유의하였다. 이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을수록 역기능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음주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분노억제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을수록 분노를 더 많이 억제하기는 하지만, 분노를 억제하는 것이 음주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에서

분노억제는 내면화된 수치심의 특성 중에서도 실수 불안과 가장 관련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결점이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특성이 분노를 더 많이 억제하게 하고, 이것이 음주문제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방지하였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추측해볼 수 있다. 한편 분노는 외부 상황에 대한 자연스러운 내적 반응으로 적절히 방출되어야 하며(노세진, 2008; 류소영, 1995), 억압하게 되면 우울이나 절망감을 느끼게 되고 자살 위험도 높아진다는 김교현(2000)의 연구 결과가 있다.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은 사람의 음주문제가 외현화된 문제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처럼 분노를 억제하는 경향이 높은 경우, 불안정한 내적 상태와 다른 정서 문제들이 함께 동반되기 때문에(최임정, 심해숙, 2010), 음주문제를 보이더라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형태가 아닌 내면화된 양상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본 연구에 국한한 것이므로, 앞으로 다양한 반복적인 연구들을 통해 교차타당화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음주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담자를 상담할 때, 가깝게는 분노표현양식을 탐색하여 부적절한 분노표출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분노표출과 음주문제에 영향을 주는 내면화된 수치심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치료적으로 다룰 수 있는 상담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음주문제에 대한 예측 변인으로 기존의 연구들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개인내적 특성인 내면화된 수치심의 역할을 탐색해 보았다. 따라서 내면화된 수치심이 음주문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경험적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내면화된 수치심,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 음주문제 사이의 관계를 개별적으로 살펴본 반면,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변인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보았다는 것도 본 연구의 의의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분노표출과 분노억제의 매개효과를 각각 검증하고 그 경로를 확인하여 내면화된 수치심과 음주문제 간의 관계성을 보다 정교화 시키고 기존 선행연구를 확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연구 결과를 통해 음주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상담할 때, 근본적으로는 이들이 갖고 있는 내면화된 수치심을 탐색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개인의 성격에 내면화되어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내면화된 수치심은 쉽게 변화시키기 어려우므로(박현지, 2012; Lewis, 1987), 이 둘의 관계를 매개하는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을 다뤄줌으로써, 즉 분노를 과도하게 표출하지 않고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행동적인 차원에서 변화를 돕는다면 음주문제를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측정도구와 관련된 제한점이 있다.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표현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Korean version : STAXI-K)는 분노억제의 내적 일치도 계수와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낮게 나타나, 전검구 등(1997)의 연구에서 추후에 분노억제와 관련된 일부 문항을 개선해야할 필요성에 대해 계속해서 논의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노억제 척도로 매개효과를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에 보다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분노억제를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타당한 척도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두 번째로, 음주문제를 측정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전적으로 피험자의 자기보고에 의존하여 피험자가 자신의 상태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류미 등(2010)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음주에 관한 자기보고식 측정치가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개인적인 편향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회고형식의 자기보고 방식이 아닌 객관적인 평가치를 함께 사용하거나 구조화된 면접을 통해 측정이 좀 더 타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수치심 연구 자체에 대한 어려움과 경험적 연구의 부족함도 한 계로 작용할 수 있다(유은영, 2012). 최근 내면화된 수치심과 관련된 이론적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경험적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며 수치심의 치료적 접근에 관한 연구도 미비한 실정이다. Kaufman(1989)이 내면화된 수치심은 자신을 위협하는 근원이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을 이해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치심에서부터 시작해야한다고 강조한 것처럼, 수치심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음주문제는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 변인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가 극히 부족한 관계로 일반화된 해석에 신중함이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후속 연구에서는 내면화된 수치심 수준에 따라 집단을 세분화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인으로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양식을 가정하였으나, 이외에도 내면화된 수치심과 음주문제를 매개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통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영건, 안창일 (2003). MMPI와 로샤검사를 이용한 분노의 억압 평가.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1), 185-207.
- 고영인 (1994). **대학생의 분노표현양식과 우울 및 공격성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고윤경 (2007). **분노표현태도와 대인관계문제: 분노표현방식의 매개효과**.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미리 (2006). **알코올 의존 유형에 따른 특성분노와 분노표현방식의 차이**.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혜진 (1994). **청소년 분노현상의 근거이론적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교현, 전경구 (1997). 분노, 적대감 및 스트레스가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 79-95.
- 김교현 (2000). 분노억제와 고혈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 181-192.
- 김남연, 양난미 (2012). 부모애착, 내면화된 수치심, 분노억제가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3(5), 2309-2328.
- 김득란 (1986). 자기표현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강릉대학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지도연구**, 5, 75-87.
- 김미림 (2012). **청소년의 수치심 경향성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림, 홍혜영 (2013). 중학생의 수치심 경향성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1), 135-156.
- 김민경 (2008). **내면화된 수치심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기제시동기,**

자기제시기대, 정서표현갈등의 매개효과 검증.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상희 (2011). 성인애착유형과 음주동기유형이 음주관련문제에 미치는 영
향.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성애 (2007). 수치심 이해와 치료에 관한 연구: 기독교 상담적 관점으로.
국제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 수 (2007). 음악치료가 알코올중독 환자의 분노조절에 미치는 영향. 한세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수미 (2009). 수치심 경향성과 내외통제성이 분노경험에 미치는 영향. 가
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연숙 (1991). 일 도시 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정신건강과의 관
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용석, 김정우, 김성천 (2001). 청소년 음주행위의 실태 및 변화와 관련 요인
들에 관한분석. 한국사회복지학회, 47, 71-106.

김의숙 (2000). 대학생의 스트레스가 음주행동 및 음주관련문제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 인 (2011).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음주문제와의 관계. 부산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김인수, 백기청, 김중빈 (1994). 일차성 성인 남자 알코올 중독 입원환자의 우
울 정도에 따른 임상 양상 비교. 신경정신의학, 33(5), 1018-1023.

김현주 (2009). 청소년의 애착유형과 분노표현의 관계: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현주, 이정운 (2011). 청소년의 애착과 분노표현의 관계: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2(3), 965-981.

김해진 (2006). 성인애착유형, 특성 분노 및 음주문제의 관계: 분노표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해진, 신현균, 홍창의 (2008). 성인애착유형, 특성분노 및 음주문제의 관계: 분노표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3), 729-748.
- 김홍석, 이정희, 정경연 (2012). 대학생의 열등감과 집착의 관계에서 긍·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3(6), 3009-3022.
- 남기숙 (2002).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수치심과 죄책감의 구분문제. **심리학과 학**, 11(1), 35-52.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과학연구소.
- 남기숙 (2008). 수치심, 죄책감 경험과 대처가 심리 증상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노세진 (2008). **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의 분노표현양식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류 미, 이민규, 신희천 (2010). 대학생의 폭음 관련 사회인지적 요인과 음주 정도의 관계: 지각된 음주규준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6(1), 63-79.
- 류설영 (1998). **대인관계 상황에서의 죄책감, 수치심과 심리적 증상의 관계 연구: 일반 청소년과 비행 청소년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영주, 한금선, 신현정, 강현철, 문소현 (2004). 청소년기 여성의 분노와 문제 행동 및 건강상태. **대한간호학회지**, 34(7), 1234-1242.
- 박영이 (2002). **사적 자의식과 특성분노가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윤선 (2007). **청소년의 부모와의 관계가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 경향성을 매개변인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정숙 (2002). **도시 저소득층 알코올사용장애의 위험 및 보호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종순 (2000). **대학생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

- 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지현 (2007). **청소년의 내면화된 수치심과 일상적 스트레스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진숙 (2007). **내현적 자기에 성격성향 청소년의 분노표현양식과 대인관계 문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 현 (2008). **서울시 지방공무원의 완벽주의 성향과 자아존중감, 분노 및 수치심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현미 (2011).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현지 (2012). **내면화된 수치심이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거절민감성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병렬 (2011). **Amos 19 구조방정식 모델링: 원리와 실제**. 청람.
- 백성희, 김혜영, 주민선, 배정은, 이해련 (2002). **청년의 주관적 건강인지와 음주 동기 및 문제음주에 관한 연구**. **간호과학**, 14(1), 26-35.
- 변영순 (2001). **성격특성이 음주실태와 음주관련 문제에 미치는 영향: 남자 대학생을 중심으로**. **기본간호학회지**, 8(2), 270-278.
- 보건복지부 (2007). **국민건강 관련 보도자료(6월 11일)**.
- 보건복지부 (2011).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5기 1차년도**.
- 서경현, 김보연 (2011). **대체 음주의 개념과 측정: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건강**, 16(4), 815-825.
- 서경현, 양승애 (2011). **대학생 스트레스원에 대한 대처방식으로서 음주의 역할**. **청소년학연구**, 18(11), 331-352.
- 서경현, 정성진, 김성민 (2005). **여대생의 음주특성과 문제음주자의 음주동기**. **여성건강**, 6(1), 33-52.
- 서수균 (2004). **분노와 관련된 인지적 요인과 그 치료적 함의**.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수균, 이훈진, 권석만 (2004). 분노표출/분노억제 태도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3(2), 521-540.
- 서영석 (2010). 상담심리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개념적 구분 및 자료 분석 시 고려 사항.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147-1168.
- 서지영 (1996). **특성 분노의 반응양식과 이에 영향을 주는 제 변인**.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수민 (2007). **수치심경향성과 죄책감경향성의 비교: 심리적 특성과 상황적 변인에 따른 차이**.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 정 (2000). **문제성음주 대학생의 심리적 특성 및 단기개입 효과**.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행우 (2004). 남자대학생의 자아정체성 발달과 음주문제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2), 141-156.
- 신행우 (1998). **성격과 음주동기가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심중은, 이영호 (2000). 수치심 경향성, 죄책감, 경향성 및 사건귀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3), 485-499.
- 양난미 (2010). 성, 음주정도에 따른 대학생의 음주문제 이해. **상담학연구**, 11(4), 1707-1727.
- 양난미 (2009). 대학생 문제음주와 데이트폭력의 관계에서 특성분노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0(4), 2539-2554.
- 양난미, 송영이 (2013). 심각한 수치 폭음을 하는 대학생의 음주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1), 83-109.
- 유경, 민경환 (2002). 아동의 도덕적 정서의 발달(수치심과 죄책감). **서울대학교, 심리과학**, 11(1), 53-69.
- 유은영 (2012). **내면화된 수치심, 자기통제력, 공격성 및 중독가능성의 관**

- 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채영 (2000). **문제음주자의 변화동기에 관한 연구: 변화전략 수립을 위한 동기유형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혜미 (2000). 대학생 음주행동과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생활과학연구** 논총, (3), 1-15.
- 이규미 (1998). **청소년의 분노와 분노처리과정에서의 공격행동에 대한 체험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연규 (2013).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대인존재감과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용욱, 천성수 (2001). **대학생 절주홍보 및 교육방법**. 대학보건협회 한국알코올과학회.
- 이우경 (1998). **부적정동, 대처방식, 인지적기대가 남자대학생의 알코올 사용 및 남용에 미치는 효과**.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주 (2008). **청소년의 분노경험과 분노표현방식의 관계에서 인지적 왜곡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원재 (2001). 대학생의 음주양태. **보건과사회과학**, 10, 79-95.
- 이원재 (2004). 대학생 알코올의존의 요인. **보건교육·건강증진 학회지**, 21(3).
- 이인숙, 최해림 (2005). 내면화된 수치심척도(ISS)의 타당화 연구-애착, 과민성-자기애, 외로움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651-670.
- 이지연 (2009). 자기노출이 분노 억제 경향이 있는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9(2), 193-210.
- 이한숙 (2004). **문제음주 대학생의 음주경험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경화 (2000). **대학생의 음주행동에 영향을 주는 심리사회적 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영란 (2000). **알코올의존 환자를 위한 인지행동치료의 효과 검증 및 심리적 위험인자에 대한 구조모형분석**.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승옥 (2001). 대학생 음주행위와 문제음주 인지도의 추이: 1996-2000. **청소년학연구**, 8(2), 259-278.
- 장진아 (2006). **여성의 대상관계가 내면화된 수치심을 매개로 분노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진경구, 한덕웅, 이장호 (1998).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STAXI-K) (Korean Adaptation of 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한국 심리학회지**, 3(1), 18-32.
- 진성희 (1995). **여고생의 분노수준 및 분노표현 유형에 따른 우울, 불안**.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미라 (2010). **내현적자기애가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수진 (2010). **충동성, 사회적 지지가 폭식 및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슬기 (2007). 여자 대학생의 문제음주 영향요인 분석: 남자 대학생과의 비교.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7(12), 176-198.
- 정원철 (2006). 대학생의 문제성음주의 실태와 관련 심리사회적 요인. **한국사회복지학**, 58(1), 347-371.
- 정해숙 (2011). **대학생의 완벽주의와 분노표현양식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해숙, 정남운 (2011). 대학생의 완벽주의와 분노표현양식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인간이해**, 32(2), 89-107.
- 조덕임 (2011). **문제음주자의 분노유발요인과 분노표출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경북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성기, 장승옥, 윤혜미, 이혜경, 최현숙, 제갈정 (2001). **대학생의 음주실태**.

한국음주문화 연구센터.

- 조 현 (2008). **인지행동적 음악치료활동이 알코올중독 환자의 분노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차소영 (2004). **부모의 음주문제가 청소년 자녀의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천성수 (1998). 음주로 인한 평균수명 손실량 추정에 관한 연구. **대한보건협회**, 48, 153-166.
- 천성수 (2002). 대학생폭음의 원인과 음주관련문제 분석. **한국알코올과학회지**, 3(2), 221-233.
- 천성수, 손애리, 송창호, 이주열, 김선경 (2003). 대학생폭음에 의한 피해 및 문제 행동에 대한 연구: 전국 60개 대학교 조사결과. **한국알코올과학회지**, 4(2), 119-135.
- 천성수, 송창호, 이주열, 이용표, 정재훈, 박종순, 김선경, 윤은숙 (2002). 대학생 문제음주 예방을 홍보·교육프로그램의 운용과 평가. **한국알코올과학회지**, 3(1), 53-86.
- 천성수, 이주열, 이용표, 박종순 (2001). 대학사회의 절주 홍보,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알코올과학회지**, 2(1), 67-114.
- 최은영 (2010). **여대생의 아동 청소년기 대인간 외상경험과 자기역량 손상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임정, 심혜숙 (2010).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표현양식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2), 479-492.
- 최정아 (1998). **청소년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환경적 요인과 인지적 요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창석, 조한익 (2011). 청소년의 수치심경향성, 죄책감경향성과 부모양육태도,

- 자기결정동기,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연구**, 18(4), 29-48.
- 최현숙 (2001). 대학사회와 음주. 알코올 백과.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58-64.
- 통계청 (2006). 사회통계조사보고서.
- 표 현 (2012). **청소년의 내면화된 수치심과 분노표현양식이 또래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일반집단과 잠재비행집단 비교-**.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금선, 양승희, 전경구 (2003). 스트레스 지각과 대처가 여대생의 스트레스 증상과 음주관련 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3), 565-579.
- 한귀원, 김명정, 김성곤, 변원탄 (1996). 알코올 의존 환자에서 음주 욕구를 유발하는 조건화 자극에 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35(4), 811-812.
- 한미혜 (2010). 원가족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가 성인초기 자녀의 친밀감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의 매개효과. **한국상담학회: 상담**, 11(2), 555-570.
- 한소영 (2002). **음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 사회적 요인**.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지영 (1998). **알코올 중독자를 위한 분노조절프로그램의 효과성 측정**.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현수진 (2002). **알코올 중독자의 음주문제 원인과 해결에 관한 책임귀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호산나 (2004). **대학생의 문제음주와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및 보호 요인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세희 (2001). 임상심리학 이론의 경험적 검증을 위한 최신 연구방법론: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매개모형과 잠재평균모형의 분석. **한국임상심리학회 3월 워크샵 자료집**.

- 홍은수 (2002). 수치심의 이해 및 치유.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지선 (2013). 성인애착이 거절민감성에 미치는 영향: 정서 과잉활성화, 외로움 및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bigail M. McNally., Tibor P. Palfai., Rachel V. Levine., & Bianca M. Moore. (2003). Attachment dimensions and drinking-related problems among young adults The mediational role of coping motives. *Addictive Behaviors, 28*, 1115-1127.
- Andrew F. Hayes. (2008). <http://www.afhayes.com/spss-sas-and-mplus-macros-and-code.html>
- Averill, J. R. (1982). *Anger and Aggression: An essay on emotion*, New York: Springer.
- Barrett, K. C. (1995). A functional approach to shame and guilt. In K. Fischer & J. P. Tangney (Eds.), *Shame, guilt, embarrassment and pride: Empirical studies of self-conscious emotions*. New York: Guilford.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226-244.
- Bilodeau, L. (1992). *The Anger Workbook*. Hazelden.
- Brown, S. A., Goldman, A., Inn, & Anderson, L. (1980). Expectations of reinforcement by alcohol: Their domain and relation to drinking patter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8*, 419-426.
- Buss, A., & Perry, M. (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452-459.
- Cautin, R. L., Overholser, J. C., & Goetz, P. (2001). Assessment of mode of

- anger expression in adolescent psychiatric inpatients, *Journal Adolescence*, 36(141), 163-70.
- Claesson. L., & Sohlberg. S. (2002). Internalized shame and other-scripts characterized by indifference, abandonment and rejection: Replicated findings based on Affect theory and Structural analysis of social behavior.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9, 277-284.
- Cohen F, Rogers D. (1997). Effects of alcohol policy change. *J. Alcohol Drug Educ*, 42(2), 69-82.
- Cook, D. R. (1987). Measuring shame: The internalized shame scale. *Alcoholism Treatment Quarterly* 4, 197-215.
- Cook, D. R. (1991). Shame, attachment, and addictions: implication for family therapists. *Contemporary Family Therapy: An International Journal*, 13, 405-419.
- Cook, D. R. (2001). *Internalized shame scale: Technical manual*. New York: Multi Health System Inc.
- Cooper. M. L. (1994). Motivation for Alcohol Use among Adolescent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Four Model. *Psychological Assessment*, 6, 117-128.
- Daley, D. C., & Marlatt, G. A. (1997). *Managing your drug or alcohol problem*. Therapy Works.
- Dearing, Ronda. L. (2005). On the importance of distinguishing shame from guilt: Relations to problematic alcohol and drug use. *Addictive Behaviors*, 30, 1392-1404.
- Deffenbacher, J. L, Demm, P. M., & Brandon, A. D. (1986). High general anger: Correlates and treatment.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24, 481-489.

- Deffenbacher, J. L., Oetting, E. R., Huff, M. E., Comell, G. R., & Dallager, C. J. (1996). Evaluation of two cognitive-behavioral approaches to general anger reduct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6*(6), 551-573.
- Digiuseppe, R. (1999). End piece: Reflections on the treatment of anger,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5*, 365-379.
- Ellenson, A. (1982). *Human relation*. N. J.: Prentice-Hall, Inc.
- Fossum, M. A., & Mason, M. J. (1986). *Facing shame: Families in recovery*. New York: norton.
- Frued, S. (1953). *The interpretation of dreams*: Plain Label Books.
- Funkenstein, D. H., King, S. H., & Drolette, M. E. (1954). The direction of anger during a laboratory stress-inducing situation. *Psychosomatic Medicine*, *16*, 404-413.
- Gaher, R. M., Simons, J. S., Jacobs, G. A., Meyer, D., & Johnson-Jimenez, E. (2006). Coping motives and trait negative affect: Testing mediation and moderation models of alcohol problems among American Red Cross disaster workers who responded to the September 11, 2001 terrorist attacks. *Addictive Behaviors*, *31*(8), 1319-1330.
- Gilbert, P., Allan, S., & Goss, K. (1996). Parental representations, shame, interpersonal problems, and vulnerability to psychopathology.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3*(1), 23-34.
- Goss, K., Gilbert, P., & Allan, S. (1994). An exploration of shame measures: I, The Other As Shamer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7*(5), 713-717.
- Gottlieb, M. M. (1999). *The angry self: A comprehensive approach to anger management*. Phoenix, Arizona: Zeig, Tucker & Co. Press.
- Gramzow, R., & Tangney, J. P. (1992). Proneness to shame and the

- narcissistic personal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8, 369– 376.
- Harder, D. H. (1995). Shame and guilt assessment, and relationships of shame-and guilt-proneness to psychopathology. In K. Fischer & J. P. Tangney (Eds.), *Shame, guilt, embarrassment and pride: Empirical studies of self-conscious emotions*. New York: Guilford.
- Harder, D. H., & Zalma, A. (1990). Two promising shame and guilt scales: A construct validity comparison.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5(3-4), 729-745.
- Hesselbrock, M. N., Hesselbrock, M. N. (1992). Relationship of family history,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and personality traits in young men at risk for alcoholism.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3, 625-629.
- Hesselbrock, M. N., Hesselbrock, V, N., & Epstein, E. E. (1999). Theories of etiology of alcohol and other drug use disorders. In B. S. McCrady & E. E., Epstein (Eds.), *Addictions: A comprehensive guidebook*. (pp. 50-72).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Jacoby, M. (1991). *Shame and the origins of self-esteem*. London, Routledge.
- Jennison, K. M., & K. A. Johnson. (1997). Resilience to drinking vulnerability in women with alcoholic parents: the moderating effects of dyadic cohesion in marital communication. *Substance Use and Misuse*, 32, 1461-1489.
- Kaufman, G. (1989). *The Psychology of shame: Theory and treatment of shame based syndroms*.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Inc.
- Knight JR, Harris SK, & Sherritt L. (2003). Heavy drinking and alcohol

- policy enforcement in al statewide public college system. *J. Stud. Alcohol, 64*, 696–703.
- Kristopher J. Preacher, & Andrew F. Hayes. (2008). Asymptotic and resampling strategies for assessing and comparing indirect effects in multiple mediator models. *Behaviors Research Methods, 40*(3), 879–891.
- Kristopher J. Preacher, & Ken Kelly. (2011). Effect Size Measures for Mediation Models: Quantitative Strategies for Communicating Indirect Effects. *Psychological Methods, 16*(2), 93–115.
- Kushner, M. G., Sher, K. J., & Erickson, D. J. (1999). Prospective analysis of the relation between DSM-III anxiety disorders and alcohol use disorder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6*(5), 723–731.
- Leeds, J., & Morgenstern, J. (1995). Psychoanalytic theories of substance abuse. In F. Rogers, D. S. Keller, & J. Morgenstern (Eds.), *Treating substance abuse: Theory and technique* (pp. 68–83). New York: Guilford Press.
- Leibsohn, Matthew todd. (1992). *The Effect of Anger on Alcohol-Related Consequences*, Colorado State University.
- Lewis, B. A., & O’Neill, K. H. (2000). Alcohol expectancies and social deficits relating to problem drinking among college students. *Addictions Behaviors, 25*(2), 295–299.
- Lewis, H. B. (1971). *Shame and Guilty in Neurosi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Lewis, H. B. (1987). *The Role of Shame in Symptom formation*. Hillsdale: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Lewis, M. (1992). *Shame: the exposed self*. New York: The Free Press.

- Lutwak, N., & Ferrari, J. R. (1997). Shame-related social anxiety: Replication a link with various social interaction measures. *Anxiety, Stress, and Coping, 10*, 335-340.
- Lutwak, N., Panish, J. B., Ferrari, J. R., & Razzino, B. E. (2001). Shame and guilt the their relationship to positive expectations and anger expressiveness. *Adolescence, 36*(144), 641-653.
- Lutwak, Nita. (2003). Shame and guilt: characterological vs. behavioral self-blame and their relationship to fear of intimac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5*, 909-916.
- McCrea, Carol S. (1996). *Anger, Sex role, And Alcohol Abuse in Women*,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 Morris, W. N., & Reilly, N. P. (1987). Toward the Self-Regulation of mood: Theory and Research. *Motivative and Emotion, 11*, 215-249.
- Mustante, L., & Treiber, F. A. (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anger-coping styles and lifestyle behaviors in teenagers. *J Adolescent Health, 27*, 63-68.
- Nathanson, D. L. (1992). *Shame and Pride: Affect, Sex, and the Birth of the Self* WW Norton & Co Inc. pp. 141-142.
- Novaco, R. W. (1979). *The cognitive regulation of anger and stress*. In P. Kendall & S. Hollan(Ed.). *Cognitive Behavioral Interventions: Theory, Research and Procedures*. NY: Academic Press.
- Piers, G., & Singer, A. (1953). *Shame and guilt*. Springfield, II: Thomas.
- Potter-Efron, R. T. (1989). *Shame, Guilt, and Alcoholism: Treatment Issues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Haworth Press.
- Scheff, T. J., Retzinger, S. M. (1991). *Emotions and Violence: Shame and Rage in Destructive Conflicts*, Lexington Books, Lexington, MA.

- Sher, K. J. (1991). *Children of Alcoholics: A critical appraisal of theory and research*.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olomon, E. P. (1987). *An examination of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coping mechanisms identified as Risk Factors for cancer.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South Florida, Tampa.
- Spielberger, C. D. (1988).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Oriando,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Spielberger, C. D., Jacobs, G., Russell, S., & Crane, R. S. (1983). Assessment of Anger: The state-trait anger. In J.N. Butcher & C. D. Spielberger (Eds.), *Advances in Personality Assessment*(pp. 161-190). Hillsdale, NJ: Erlbaum.
- Spielberger, C. D., Johnson, E. H., Russell, Crane, R. S., Jacobs, G. A., & Worden. T. J. (1985). The experience and expression of anger: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n anger expression scale. In M.A. Chesney & R. H. Rosenman (Eds.), *Anger and Hostility in Cardiovascular and Behavioral Disorder*, 5-30, New York: Hemisphere.
- Spielberger, C. D., Krasner, S. S., & Solomon, E. P. (1988).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n M. P. Janisse(Eds.). individual differences, stress and health psychology. New York: Springer Verlag.
- Spielberger, C. D., Reheiser, E. C., & Sydeman, S. J. (1995). Measuring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n H. Kassinoer(Ed). *Anger Disorder: Definition, Diagnosis, and Treatment*(pp. 1-26). Tatlor & Francis.
- Straus, R. (1984). The need to drink too much, *Journal of Drug*

Issues(Winter), 125-136.

- Tangney, J. P., & Dearing, R. L. (2002). *Shame and Guilt*. New York: Guilford Press.
- Tangney, J. P., & Miller, R. S., Flicker, L., & Barlow, D. H. (1996). Are shame, guilt, and embarrassment distinct emo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6), 1256.
- Tangney, J. P., Wagner, P., & Gramzow, R. (1992). Proneness to Shame, proneness to guilt and psychopatholog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 469-478.
- Tangney, J. P., Wagner, P., Hill-Barlow, D., Marschall, D. E., Garmzow, R. (1996). Relation of shame and guilt to constructive versus destructive responses to anger across the lifesp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4), 797-809.
- Tomkins, S. S. (1963). *Affect/Imagery/Consciousness: Vol. 2. The negative affects*. New York: Springer.
- Tomkins, S. S. (1987). Shame. In D. L. Nathanson (Ed.), *The many faces of shame*, (pp. 133-161). New York: Guilford Press.
- Vanriette, Catherine Aileen. (2001). *Effects of Anger and Aggression on Driving Behavior*, Ms: California State University, Fullerton.
- Weinder MD, Pentz MA, Turner GE, Dwyer JH. (2001). From early to late adolescence: alcohol use and anger relationships, *Journal Adolesc Health*, 28(6), 450-7.
- Yerkes, R. M., & Dodson, J. D. (1980). The relation of stimulus to rapidity of habit formation. *Journal of Comparative and Neurological Psychology*, 18, 459-482.
- Yontef, G. (2008). **알아차림, 대화 그리고 과정**(Awareness, Dialogue and

Process: Essays on Gestalt Therapy). (김정규, 김영주, 심정아 역).
서울: 학지사.

Young, R. M., T. P. S. Oei, & Knight. (1990). The tension reduction hypothesis revisited: An alcohol expectancy perspective. *British Journal of Addiction, 85*, 31-40.

Zaitsoff, S. L., Geller, J., & Strikameswaran, S. (2002). Silencing the self and suppressed anger: relationship to eating disorder symptoms in adolescent females. *European Eating Disorders Reviews, 10*(1), 51-60.

Zucker, R. A. (1986). The four alcoholisms: A developmental account of the etiological process. In R. Dienstbier, & P. C. Rivers(Eds.), *Alcohol and Addictive Behavior*, (pp. 27-84). Lincoln, NE: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Zucker, R. A., & Gomberg, E. S. L. (1986). Etiology of alcoholism reconsidered: The case for a biopsychosocial process. *American Psychologist, 41*, 783-793

ABSTRACT

The Influence of Internalized Shame on the Drinking Problems Among College Students : The Mediating Effect of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Kim, nuree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on the relation between internalized shame and the drinking problems. The participants were 604 college students in Seoul and Jeonbuk area. For that purpose, Each participant surveyed with a questionnaire consisting of the Internalized Shame scale(ISS),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Korean version(STAXI-K), and Drinking problems scale. The data were analyzed by Pearson's Correlation, the Multiple mediator models with SPSS 18.0, SPSS macro and Amos 20.0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nternalized shame had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with drinking problems. All of the internalized shame's subvariables had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with drinking problems, and internalized shame had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with anger-out and anger-in. Lastly, all this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had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with drinking problems.

Second, the relationship analysis b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dicated that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had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 between internalized shame and drinking problems. The assumed model was evaluated by several fit indices such as χ^2 , GFI, TLI, CFI, RMSEA. As a result, every fit index of partial mediation model was good.

Third, A bootstrap approach was used to test the mediation effect of anger-out and anger-in. The results showed that internalized shame had direct effect on drinking problem and only anger-out mediated the influenced of internalized shame on drinking problems.

As this study investigated that internalized shame influenced drinking problems by mediating anger-out, it helps theoretical approach on the mechanism and route of drinking problems to provide. Also when counseling college students with the drinking problems, those findings imply that it is important to intervene counseling strategies focused on changing one's inappropriate anger-out attitude to adaptive style as well as to understand internalized shame.

Finally, based on the overall finding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Internalized shame,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Anger-out, Anger-in, Drinking problems

부 록

부록 1.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

부록 2.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 척도

부록 3. 음주문제 척도

부록 1.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

1. 다음 문항들은 **자신에 대해 경험하고 있거나 느끼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경험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문항의 번호에 (● 또는 ✓)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스스로 꽤 괜찮다고 느낀 적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어쩐지 내쳐진 느낌이다.	①	②	③	④
3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대체로 내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스스로를 비웃고 자신을 알본다.	①	②	③	④
6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7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는 결코 기대(이상)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내 자신이 매우 작고 보잘 것 없이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9	나는 자부심이 강하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부적절감을 강하게 느끼고 자신에 대한 회의로 가득 차 있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인간으로서 뭔가 결함이 있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12	내가 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나는 그들만큼 중요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문항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5	나는 완벽을 추구하지만 늘 부족함을 볼 뿐이다.	①	②	③	④
16	다른 사람들이 내 결점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7	나는 실수를 하면 몽둥이로 내 자신의 머리를 내려치고 싶다.	①	②	③	④
18	대체로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19	실수를 하면 나는 움츠려 드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20	나는 고통스러운 사건을 마음속에서 반복적으로 생각해서 결국 압도되고 만다.	①	②	③	④
21	다른 사람과 똑같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22	때로 내가 수천조각으로 부서질 것 같이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23	나는 내 신체와 감정에 대한 통제감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24	때로 나는 콩알처럼 아주 작게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25	때로 내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 같을 때 땅이 나를 삼켜버렸으면 싶다.	①	②	③	④
26	내 안에는 내가 채울 수 없는 고통스러운 괴리가 있다.	①	②	③	④
27	나는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음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28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29	나의 외로움은 텅 빈 공허감과 같다.	①	②	③	④
30	나는 뭔가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다.	①	②	③	④

부록 2.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 척도

2.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가 나거나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다음의 문장을 읽고 **화가 났을 때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가장 잘 나타내는 번호에 (● 또는 ✓)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자신이 경험한 적이 없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이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화난 감정을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말을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똥해지거나 토라진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사람들을 피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소리를 지른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문을 광 닫아버리는 식의 행동을 한다.	①	②	③	④
7	나는 상대의 시선을 피한다.	①	②	③	④
8	나는 사람들과 말다툼한다.	①	②	③	④
9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지만, 안으로 앙심을 품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목소리를 높인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속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나 자신이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화가 더 나 있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욕을 한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보다 분통이 더 나있다.	①	②	③	④
15	나는 자제심을 잃고 화를 낸다.	①	②	③	④

부록 3. 음주문제 척도

3. 다음은 **음주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에 대한 문항들입니다. 문항을 읽고 자신이 각각의 경험들에 대해 지난 **3개월 동안**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를 해당하는 곳에 (● 또는 ✓)로 표시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한번 그런적 있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거의 항상 그렇다
1	과음으로 인해 지각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술을 마신 뒤 과격한 행동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술로 인해 약속시간에 늦거나 약속을 못 지킨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을 때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술 때문에 주어진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6	술을 마신 뒤에 가족이나 친구 등과 말다툼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술을 마시는 동안 또는 후에 분노를 터뜨리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8	술을 마시는 동안 물건을 던지거나 부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술 마시고 시비나 싸움에 휘말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가 술을 자주 혹은 많이 마셔서 또는 취중 행동 때문에 친구(이성 친구 포함)와 다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술을 마시는 동안 또는 술 취한 후에 언쟁을 벌이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한번 그런적 있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거의 항상 그렇다
	있다.					
14	술을 마시면 술주정을 하여 주위 사람들로 부터 핀잔을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15	술 때문에 사고를 당해 다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과음으로 인해 학교(혹은 아르바이트)에 결석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부모님은 내가 술 마시는 것에 대해 화를 내거나 걱정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술 때문에 나의 의무나 중요한 일들을 제대로 다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술에 취해 치고 박고 싸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술 마시는 것 때문에 수업이나 성적 취득 또는 일하는 데 지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에 표시 또는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본인의 나이는? 만 _____ 세
3. 본인의 학년은 ?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⑤ 기타()
4. 본인의 전공은?
① 인문·사회계열 ② 법학계열 ③ 상경제열 ④ 사범계열
⑤ 자연·이공계열 ⑥ 생활과학계열 ⑦ 의료·간호계열 ⑧ 기타()
5. 본인의 거주형태는?
① 부모와 거주 ② 혼자서 자취 ③ 친구와 자취 ④ 형제와 자취
⑤ 친척집에 거주 ⑥ 기숙사 ⑦ 하숙 ⑧ 기타()

♠ 다음은 여러분이 어떠한 **음주 습관**과 **음주 유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평소 여러분의 음주 경험에 따라 각 문항에 솔직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당신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술을 자주 마십니까?
① 전혀 안 마신다 ② 1년에 3-4회 이하 ③ 한 달에 1회
④ 한 달에 2-3회 ⑤ 1주에 1회 ⑥ 1주에 2-3회
⑦ 1주에 4회 이상

